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232

2010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수 빈

#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Inhyeonwanghujeon> and <Sassinamjeonggi>

201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수 빈

#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수 빈

이수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0 년 6월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1
2. 연구사 검토 ····· 4

Ⅱ. 작품의 성격 비교 ····· 8
1. 장르적 성격 ····· 9
2.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 ····· 13

Ⅲ. 등장인물의 성격 비교 ····· 19
1. 숙종과 유한림의 성격 ····· 19
2. 인현왕후와 사씨의 성격 ····· 28
3. 장희빈과 교씨의 성격 ····· 37

Ⅳ. 현실 대응 양상 비교 ····· 45
1. 사회적 질서 수용 ····· 46
1) 가부장제 ····· 46
2) 효(孝)와 덕(德) ····· 52
2. 개인적 욕망 추구 ····· 57
1) 신분상승 ····· 58
2) 부귀영화 ····· 62

Ⅴ. 결론 ····· 67
참고문헌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Inhyeonwanghujeon> and <Sassinamjeonggi>

Lee Soo-Bin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hyeonwanghujeon」 and 「Sassinamjeonggi」 have similar aspects in their compositions as the materials of both works are related with expelling of Queen Inhyun. They describe Confucian patriarchal system in detail.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ir comparison in opposition of good against evil and conflicts between one´s wife and concubine. However, this study examines their genres, the periods and motives of their creation, personality of the characters from the both literary works, and how they dealt with reality based on irresolute King Sukjong and Yoo Han Rim.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troversies on the genres, backgrounds, and motives of the two works. 「Inhyeonwanghujeon」 is a biographical novel in which elements of essay, narrative and novel are combined and which was written to admire royal virtues of Queen Inhyun. It is valid to consider 「Sassinamjeonggi」 was written while Kim Man Jung exiled to make King Sukjong realize his faults.

It is suggested that King Sukjong and Yoo Han Rim have common personality of irresolution in that both literary works were created with real events as motives. However, King Sukjong was impetus and dogmatic, but

could reflect his wrong. Yoo Han Rim was shy and considered the cause as important in everyway. Queen Inhyun and Mrs. Sa are similar in that they consider the cause as important in Confucian society, but the former considered norms as important, had confidence and was resolute. Mrs. Sa resolutely dealt with everything for her family's prosperity as a manager of her family. However, she was voluntary and positive out of her family. Janghibin and Mrs. Gyo had life full of ups and downs. The former was confident and honest in expressing her feeling. Such confidence helped her to realize her desires, but honesty made her lost in despair. Mrs. Gyo had complaints in her poverty. So, she was active in destroying order of reality and change her life. She did wrong behaviors insensibly to escape from the moment when her faults are revealed.

Queen Inhyun and Mrs. Sa followed the order imposed by Confucian patriarchal system at that time. She was confident in their families and could accommodate the order of their society following the patriarchal system. However, Janghibin and Mrs. Gyo were unsatisfactory with their status system. Therefore, they challenged the society to pursue their personal desires rather than follow the social order. They consistently planned to have higher status and pursue wealth and prosperity. The reasons they pursued for their personal desires were King Sukjong and Yoo Han Lim.

So far this study examined personality of the characters from 「Inhyeonwanghujeon」 and 「Sassinamjeonggi」 and how they deal with their reality and discovered that they did their best in their own positions. Queen Inhyun and Mrs. Sa accommodated the order of Confucian society as they had confidence in their positions and status while Janghibin and Mrs. Gyo challenged the society by pursuing personal desires to achieve what they want as they were unsatisfactory in their society. It is difficult to judge whose life is right or wro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ives in the both literary works should be examined with different viewpoints respectively instead of determining which one is good or evil.

# Ⅰ. 서 론

## 1. 연구목적 및 방향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서로 작자와 창작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은 비슷한 점이 많다. <인현왕후전>은 조선조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라는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이고, <사씨남정기>는 인현왕후 폐출 사건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된 김만중이 창작한 작품이다. 두 작품에 드러난 배경이 조선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은 주인공들의 갈등양상, 대립구조에서 서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는 개별 작품의 연구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련성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선인과 악인, 남성을 사이에 둔 여성들의 애정 대결로 진행되어왔다. 요즘 들어서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반영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현실 대응 양상이나, 여인상을 비교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 두 작품은 남성인물에 비해 여성인물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동적이며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왔다. 당시의 유교적 시대상이 작품이 반영되어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두 작품의 연구 역시 단순한 남성을 차지하기 위한 애정 대결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두 작품 속에서 여성이 당시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들의 성격을 표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인현왕후전>의 배경으로 숙종이 집권했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알력싸움이 치열해져 세 차례의 환국과 붕당정치로 나라의 혼란이 절정에 달아 더욱 혼란한 시기였다. 오히

려 전쟁이 없었던 이 시기가 태평성대가 아닌 붕당과 환국으로 피바람이 몰아치는 혼란한 시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웠던 원인에는 당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숙종의 정치적 판단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우유부단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씨남정기> 역시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유한림이 가정내에서 가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정의 불화를 몰고 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였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념이 널리 퍼져있었고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와 가정을 이끄는데 실패했다. 자신의 맡은바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좁게는 가정 크게는 나라를 이끄는데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과 질서를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복에만 안위를 두었다. 당시 시대가 유교적 가부장 사회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그들의 결단과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간신들의 감언에 속아 자신의 판단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있었다. 이렇게 숙종과 유한림의 결단력 없는 모습은 그들의 주변 상황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킨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는데 숙종과 유한림은 이중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나아가 가정 또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유한림은 사씨를 내쫓고 장희빈과 교씨에게 휘둘려 성정을 흐리게 된다. 처· 첩 갈등으로 이렇게 가정이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만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내용이 여성을 중심으로 처와 첩 사이의 갈등,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고 연구해 왔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의 남편들로 등장하는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초에 두고 여인들의 현실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첩의 간계(奸計)에 빠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 사회가 유교적인 가부장 사회였고 이에 여성들은 여기에 맞추어

생활하고 행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숙종과 유한림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여성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만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이 원인이 되어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두 작품은 서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다르게 인식된다. 자신들의 신분계층 속에서 각자의 현실을 바라볼 때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두 작품 역시 시대상황과 등장인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두 작품이 큰 줄거리의 토대는 비슷하지만 글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성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 작품의 등장인물을 대비 시켜 숙종과 유한림, 인현왕후와 사씨, 장희빈과 교씨의 성격을 비교한 후, 당시 사회가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인물들이 어떻게 현실에 대응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당시 시대는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숙종과 유한림, 인현왕후와 사씨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나라의 지아비, 지어미로서, 유한림과 사씨는 가정의 지아비와 지어미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림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에 장희빈은 중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교씨는 사족의 딸로 가난에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가정에서 역시 처가 아닌 '첩'의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상승을 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 때 장희빈과 교씨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신분상승을 꾀했던 것에는 바로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유교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자신의 주관 없이 '첩'의 간계에 넘어가고 그들의 뜻대로 숙종과 유한림이 행동하자 자신들의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신분상승 욕구를 발산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당시 가문과 나라를 이끌던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은 서로의 신분 차이에 따라 현실을 대응하는 양상

이 달라진다. 처음부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현왕후와 사씨가 숙종과 유한림이 태도로 인해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상황 만족하지 못하고 신분상승을 열망한 장희빈과 교씨의 현실 대응 양상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본 논문의 진행 방향을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두 작품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작품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먼저 두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짝지어 숙종과 유한림, 인현왕후와 사씨, 그리고 장희빈과 교씨가 서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려 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이 두 작품의 남성 주인공인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한 삶에 대항하여 이 작품의 여인들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회적 질서 수용과 개인적 욕망 추구로 나누어 비교하고 결론에서 이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조선 숙종 때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인현왕후는 조선 숙종대의 실존인물로 숙종의 계비이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승하하고 인현왕후가 왕비에 책봉된다. 그러나 숙종은 일국의 왕비를 장희빈이라는 후궁의 간사한 속삭임에 넘어가 폐위와 복위를 반복 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 <인현왕후전>이다. 그리고 <사씨남정기>는 인현왕후의 폐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된 김만중이 지은 허구적인 소설이다. 이 두 작품은 조선 숙종 때 끊임없이 휘몰아쳤던 당쟁의 소용돌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끊임없이 연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에 대한 연구는 『문장』지에서 가람 이병기가 <인현왕후전>에 관한 해설을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1] 이 후 나손 김동욱이 <인현왕후전 이본고>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 <인현왕후전>에 대한 연구는 이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욱[2]이 2종의 이본을 비교했고, 박요순[3]도 2종의 이본에 자신이 소장한 이종을 공개하면서 남애본, 국립본을 합쳐 총 6종을 가지고 이본 연구를 하였다. 김신연[4] 역시 기존의 이본에 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일사문고 소장본, 구활자본을 합쳐 총 13종을 가지고 이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본은 문학연구를 기본으로 이본 상호간의 선후관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최고본과 그 후대본을 찾는 등 이본의 계통이나 편년을 완성하는 것을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본이 출연하면 이본고는 다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5]

그 뒤 이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병기의 『가람본』이 유일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작품 및 성립 연대, 장르 및 명칭에 관한 연구가 나타났다. 이어서 내용 연구도 진행되었고 김충배는 작중 인물의 현실 대응으로 인현왕후 민씨, 희빈 장씨, 숙종 등을 각각 인지적 이상형, 욕망충족형, 조정자의 역할[6]로 분석했으나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7]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서포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작가와 연대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 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창작 동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고, 이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았다. <사씨남정기>의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자산 안확의 『조선문학사(朝鮮

1) 『문장』 1940년 2월호, 9월호에 원문을 주해 발표하고 해설을 하였다.
2) 김동욱, 「인현왕후전 이본고」, 『문리사대』 1, 서울문리사범대학, 1959.
3) 박요순, 「仁顯王后傳 硏究 : 特히 未發表 異本을 中心하여」, 『숭전어문학』,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7.
4) 김신연, 「仁顯王后傳 異本考」, 『원우론총』 10, 숙명여대대학원 총학생회, 1992.
5) 위의 논문.
6) 김충배, 「인현왕후전 연구-사상적 배경과 작중인물의 현실 대응을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7) 조지영,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대비 연구-주인공의 인간상을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文學史)』에서부터이다.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8]에서 최초로 <사씨남정기>를 목적소설이라 주장하였다. 그 후 김태준(金台俊)의 『조선소설사(朝鮮小說史)』에서 이 작품의 제작 동기를 숙종의 민비 폐출 사건을 풍자하고자 한 목적소설이라 규정하였다.[9]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씨남정기>를 목적소설로 규정한 저작 동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작품의 내용 연구와 함께 이념과 욕망의 문제[10] 미학적 추구[11]등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보이고 있다. 작품의 인물 분석에 중점을 둔 것으로는 김경미와 박선희 등의 연구가 있다. 김경미[12]는 인물의 성격을 외모, 신분, 물질적인 환경, 타인에 대한 행동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사씨와 교씨, 유한림과 동청· 냉진 간의 대립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박선희[13]여성 인물 연구에 초점을 맞춰 신분에 따라 사대부가의 안주인, 첩, 노비 세 계층으로 분류하여 연구했다.

또한 <사씨남정기>와 <인현왕후전>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왔다. 박갑수[14]는 두 작품의 주제가 '처첩의 질투를 징계한 권선징악'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문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문학적인 면보다 언어학적인 면에 중심을 두었다. 원선자[15]는 두 작품의 내용보다 <인현왕후전>과 『숙종실록』의 내용을 비교에 중점을 두어, 문학과 역사 기록의 비교 연구에 치중하였다. 이 밖에도 장르 설정 문제와 작가 의식,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은임[16]은 궁정 실기 문학의 연구 관점에서 <인현왕후전>에 관심을 집중하고, 주로 인물의 성격 분석에 중심을 두었다. 이들의 연구는 두 작품 자체의 구성에 관한 비교보다 문체론이나 실제 역사 기록과의 비교에 치중하였다. 인물 분석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애정의 교차에 관심을 집중하여, 여성 인물이 현실에

8) 이규경, 「소설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권7.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0)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1) 박일용, 「謝氏南征記의 理念과 美學」,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 김경미, 「謝氏南征記 作中 人物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13) 박선희, 「사씨남정기의 여성 인물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4) 박갑수,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14, 한국 교육 연구회, 1968.
15) 원선자,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비교연구;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72.
16) 정은임, 「사씨남정기와 인현왕후전의 비교연구: 인물의 성격구조를 중심으로」, 『논문집』 16, 강남사회복지대, 1986.

휘둘리는 체계 순응적이고 부정적인 인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17] 이렇게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는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그 대결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후 김은숙은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을 현실수용, 현실도전으로 나누어 연구했고 조지영[18]은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작품에 반영된 주인공의 여인상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 추구형과 개별적 욕망 선택형으로 나누어 대비 연구를 진행 했다. 그동안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지만 작품을 분석할 때는 남성을 우위에 놓고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남성을 사이에 둔 여성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왔는데 이제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현실 대응이나 여인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7) 김은숙,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18) 조지영,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대비 연구 - 주인공의 인간상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5.

## Ⅱ. 작품의 성격 비교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그 주제나 줄거리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인현왕후전>은 숙종을 사이에 두고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대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사씨남정기>는 유한림을 중심으로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통해 여성의 수난과 극기의 미덕을 형상화한 가정소설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나 유한림을 왕으로 바꿔 생각하면 궁중에서 벌어지는 사태의 간접적인 표현이거나 충신과 간신사이의 싸움과 상응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만중이 인현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은 숙종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19] 김만중은 당시 인현왕후의 폐위가 잘못되었음을 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된 인물이다. 이 소설을 창작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숙종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기 위해 간접적으로 <사씨남정기>를 창작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작품을 살펴보면 <인현왕후전>은 조선 숙종 대 궁중이 배경이고 <사씨남정기>는 중국의 명나라가 배경이 된다. 이러한 두 작품이 인현왕후 폐출이라는 상황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품의 창작 시기와 창작 동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 두 작품은 한국 봉건가족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앗싸움의 비극성을 소재로 했다. 숙종이 죄 없는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간사한 장희빈을 맞아들인 기사환국의 처사에 대해 일침을 가한 쟁총형 가정소설이요 풍자소설이기도하다.

남정기의 주제는 숙종이 인현왕후 폐비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일부다처 주의적 가정생활에서 야기되는 비극을 표현해 보고자하는 작자의식의 반영이다. 어느 날 숙종에게 궁녀가 이 소설을 읽어 드렸더니 여기서 자극을 받았는지 숙종 20년 장희빈을 폐출시키고 민비를 복위시켰다.[20] 처음 이 소설을 듣고 유한림이라는 선

19)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연구』, 보고사, 2006. p.217.

비가 너무 바보 같기에 잘못을 호통 치다가 그 인물이 자신을 빗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동안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문학에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녹아있다. 그래서 소설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문화가 녹아있어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시기에 작품을 창작하였는지에 따라서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르의 문학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장르적 성격과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장르적 성격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인현왕후 폐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인현왕후전>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는 숙종 대의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이나 '전(傳)'의 장르에 더 많은 중심이 실려 있다. 그러나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설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씨남정기>는 일반적으로 김만중이 인현왕후 폐위와 관련되어 남해로 유배를 가서 숙종을 깨우치기 위해 지은 목적소설, 풍자소설, 가정소설로 연구되어 왔다.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은 전, 수필, 소설 등 여러 장르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현왕후전>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보면 수필에 속한다. 또한 작품의 구성상 <인현왕후전>은 갈등 양상, 주제의식 등이 드러남으로 소설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현왕후전>의 장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먼저 <인현왕후전>의 장르를 전(傳)으로 보는 것이다. 서두가 인정기술에 해당하는 인물의 가계로 시작하고, 탄생, 왕비 책봉, 폐출, 복위, 성덕, 등 행적 사항과 죽음, 논찬이 있다는 점에서 전(傳)적인 요소[21]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김광순, 『고소설사』, 새문사, 2006. p.261.
21) 김신연, 「인현왕후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p.136.

<인현왕후전>은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 인현왕후의 성덕을 작품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현왕후전>의 장르가 전(傳)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인현왕후전>을 수필로 보는 것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입각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축일기(癸丑日記)>, <한중록(閑中錄)>과 더불어 궁중문학의 대표적인 수필 작품의 하나로 내간체 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인현왕후전>은 장희빈으로 인해 인현왕후가 폐출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인현왕후전>을 수필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인현왕후전>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건이 기술이 첨가 되어 있고 인물 설정 방법이나, 갈등 양상, 주제 의식 등 작품 구성상 수필적 요소보다 소설적 요소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수필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인현왕후전>의 장르를 소설로 보는 견해이다. 주인공의 비범한 탄생,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그들의 내면 관찰 서술, 대화를 통한 상상적 재현, 장면 묘사의 치밀함, 가치 구현 방식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닌 인물에게도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는 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한 점 등에서 <인현왕후전>의 소설적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고소설적인 사실주의와 신비주의의 세계관을 발견하고 전기소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22] 이 작품은 숙종을 중심으로 인현왕후와 사씨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갈등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현왕후전>에 나타난 소설적 요소에 따라서 소설의 장르가 세분화 된다. 실기형 전기소설, 전계소설로 나누어진다. <인현왕후전>이 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이를 작품으로 기록하는 방법에서 허구적으로 실제 사건을 기록문학적 측면에서 창작된 소설이라 볼 수 있다.

김용덕[23]은 <인현왕후전>을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실기형 전기소설에 대해 '내용상으로는 사실에 의존하는 실기형이며 형식상으로는

22) 김신연, 위의 논문, pp.139~155.
23)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단일 사건을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는 연대기형이다.'라고 실기형 전기소설에 대해 정의했다.

김신연은 <인현왕후전>이 전(傳)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으나 서사적 성향이 강화되어 소설로써의 성격을 더 많이 갖게 된 소설이라 하여 '전계소설'로 규정하였다. 전의 특징인 인현왕후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등장인물의 가계나 인현왕후의 품성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물구성방식이나, 갈등 구조 등은 소설적 요소를 드러낸다. 즉, 전과 소설의 중간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현왕후전>의 장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인현왕후전>은 전, 수필, 소설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장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힘들다. 가계를 상세히 밝힌 점이나 성장 과정과 품행을 묘사한 점은 전(傳)의 수법과 같고 태몽과 출생 시의 이전은 소설적 기법이다. 따라서 내용 면은 전의 사실적 수법을, 형식면은 소설의 표현 기법을 수용하여 구성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24]

즉 <인현왕후전>은 인현왕후라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모티프로 했다는 점에서는 수필적인 요소가, 인현왕후의 일대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의 요소가, 작품의 구성 방식에는 소설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한 작품 안에서 복합된 장르가 바로 <인현왕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현왕후전>을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보겠다.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가는 이야기"이다. <사씨남정기>가 소설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서 장르는 과연 이 작품이 소설의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숙종을 깨우치기 위해 지었다는 점에서는 목적소설로 볼 수 있고, <사씨남정기>의 주인공을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을 빗대어 창작한 것으로 보면 풍자소설, 처·첩간의 갈등으로 보면 가정소설이라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는 한국 최초의 국문학사인 자산 안확의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朝鮮小說史)』에서는 작품의 경

24)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p.308.

계 소개와 함께 이 소설의 성격을 숙종의 인현왕후 폐출 사건을 풍자한 목적소설이라 규정하기에 이른다.[25]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은 <사씨남정기>를 목적소설로 구분지어 연구를 진행 했고.[26] 이에 맞서 목적소설(目的小說)이 아니라 가정소설이라는 입장[27]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만중이 이 소설을 창작 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작품이 왜 목적소설의 입장에서 연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김만중의 집안은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연관이 깊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김만중의 형 김만기의 딸이었고, 인경왕후가 죽은 후 인현 왕후가 왕비가 되자 계속 인현왕후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김만중 역시 인현왕후 폐출 사건으로 장희빈이 세력을 얻을 때 숙종에 간하다가 선천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김춘택 역시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김만중은 <사씨남정기>를 지어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 시키고 장희빈은 왕비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한림과 사씨를 통해 숙종이 과오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소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만중은 사씨의 덕을 강조해 유한림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이를 교묘하게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사씨남정기>를 창작했다.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서로 대비 되도록 작품을 창작했는데 <사씨남정기>에서 숙종은 유한림으로, 인현왕후는 사씨, 장희빈은 교씨로 볼 수 있다. 김만중은 이를 통해 유한림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갔는지 그리고 사씨가 가문을 이끌고 가문에서 내침을 당하고 난 후의 행적 등을 통해서 인현왕후 폐출 사건의 부당성을 풍간하기 위한 풍자소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25) 김태준,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26)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박성의, 『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정규복, 「남정기의 저작동기에 대하여」, 『성대문학』 15 · 16, 성균관대, 1970.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0.
진경환, 「소설사적 관점에서 본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관계,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27) 이석래, 「서포소설의 문제점」, 『성심어문논집』 1, 성심여대 국어국문학과, 1966.
김현룡, 「사씨남정기 연구」, 『문호』 5,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69.
우쾌제, 「사씨남정기 연구」, 『숭전어문학』 1, 숭전대 국어국문학과, 1972.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 3,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또 <사씨남정기>는 최초로 가정내의 처·첩 문제를 최초로 다룬 가정소설(家庭小說)이라는 것이다. 자산 안확은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에서 <사씨남정기>를 가정소설로 규정[28]하고 처·첩 갈등의 양상을 주목을 주목했다. 그는 처와 첩의 대립을 통해서 가정소설로써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

<사씨남정기>에서 갈등의 핵심은 유한림을 사이에 두고 사씨와 교씨간의 갈등을 통해 여성의 수난과 극기의 미덕을 형상화한 가정소설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가정소설로 다루어져 처·첩간의 쟁총형으로 간주되어 온 것도[29]이 때문이었다. 즉, <사씨남정기>는 사씨와 교씨의 처첩갈등과 이 갈등 속에서 여성의 수난과 극기의 미덕을 통해서 가정 화목을 위한 권선징악(勸善懲惡)적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 의미를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가정소설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30]

여러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씨남정기>를 목적소설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김만중이 창작했다. 그리고 김만중은 인현왕후의 폐출과 관련되어 귀양을 가게 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시키고 장희빈은 왕비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한림과 사씨를 통해 숙종이 과오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소설이라 목적소설이라 정의하겠다.

## 2. 창작 시기 및 창작 동기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가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관련지어 창작된 작품이라고 본다면 두 작품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작가가 다름에도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이 두 작품의 창작 시기와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정설이라 입증될 만한 사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작품에 대한 창작 시기와 창작 동기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8) 안자산, 최원식 역『조선문학사』, 을유문화사, 1984. p.173.
29) 김기동,『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p.303.
30) 이원수,『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61~62.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은 <인현성모민씨덕행록(仁賢聖母民氏德行錄)>, <인현왕후민씨덕행록(仁賢王后民氏德行錄)>, <인현성후덕행록(仁賢聖后德行錄)>등으로 불리는데 <인현왕후전>의 작자나 창작시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인현왕후전>에 대해 많은 이본들이 있고 그 이본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현왕후전>의 이본인 일사본이나 설태본은 인현왕후가 죽고 장희빈의 죽음으로 내용이 끝이난다. 하지만 가람본 에서는 <인현왕후전>의 창작 시기를 인현왕후의 사망 직후로 볼 것인지, 정조 대 이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따라서 창작 동기에도 차이가 드러난다.

<인현왕후전>을 인현왕후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창작 된 것이라 하면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인현왕후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모든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기 전에 인현왕후를 기리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현왕후전>을 창작한 작자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제목에서부터 <인현왕후전>이기 때문에 인현왕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인현왕후를 칭송하므로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현왕후전>에 대한 연구는 가람 이병기[31]가 『국문학전사(國文學全史)』에서 작자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인현왕후를 모시고 있던 궁인'이라고 추정하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작자가 궁인 설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며 연구가 되어 왔다.

궁녀가 <인현왕후전>을 창작했다고 보는 것은 <인현왕후전>의 내용이 인현왕후의 일생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문체가 궁중에서 여성들이 즐겨 쓰던 내간체 산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궁중의 여러 모습이 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 궁녀가 작자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즉 인현왕후를 옆에서 모시던 궁인이 인현왕후의 덕행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숙[32], 박요순[33]은 궁인이 작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김용

31)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87.
32) 김용숙,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硏究』, 숙명여대출판부, 1970.

숙은 인현왕후의 친정에서 창작한 것으로 보고, 박요순은 작자를 미상으로 보는데 굳이 작자를 정하자면 서인의 한사람일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인현왕후전>의 내용상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서로 극명하게 대립한다. 인현왕후는 덕이 있고 선한 인물로 장희빈은 방자하고 악독하며 악한 인물로 나타낸다. 장희빈의 악독함에 인현왕후의 성덕을 칭송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반면에 <인현왕후전>의 창작시기를 이병기가 『문장』에 "이는 후가 집필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정조 때 쯤 궁인의 손으로 된 듯하다"고 밝힌 것과 같이 정조 대로 볼 수 있다. 이는 <인현왕후전>의 이본인 가람본에 장희빈 사후에 인현왕후 인산 때의 이야기, 그 친정 후예들의 이야기, 경종의 사적(1720~1724), 영조 대 50여년(1724~1776)의 태평 성세 치적의 이야기 등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34] 하지만 <인현왕후전>이 정조 대에 창작되었다는 점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인현왕후 사후 70년이 지난 후에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인이 창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인현왕후전>의 이본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이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후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본들에는 인현왕후의 사후 친정 후예들의 이야기, 영조 시대의 치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시기를 정조 대 이후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후기에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된 이유는 <인현왕후전>이 인기가 많았으므로 후대의 사람들이 내용을 점차 첨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인현왕후전>에 대한 작자나 창작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인현왕후의 덕행을 칭송하기 위해 그녀를 곁에서 모시던 궁인이나, 그의 후손, 혹은 정치적으로 서인 세력이 <인현왕후전>을 창작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현왕후전>은 여러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유나 목적이 어찌되었건 <인현왕후전>의 창작 동기는 인현왕후의 성덕을 칭송하기 위해 창작 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

33) 박요순, 「仁顯王后傳 硏究 : 特히 未發表 異本을 中心하여」, 『숭전어문학』,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7.
34)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p.323.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당시 고전 소설의 작자가 미상이었던 시대에 작자가 명확하게 알려진 작품이다. <사씨남정기>에 대해서 김만중은 숙종 대 당쟁이라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사씨남정기>는 작자가 김만중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창작시기가 김만중의 생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가 밝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선천 유배 전(1687년 이전)인지, 선천 유배 후 모부인이 돌아가시기 전(1687년~1689년)인지, 남해 유배 기간(1689년~1692년)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규경이 『오주연무장전산고』에서 "북헌의 경우 숙종이 인현왕후 민씨의 자리를 내놓게 한 일에 대해 성심을 깨우치고자 지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규경은 김만중이 한글로 쓴 소설을 김춘택이 한문으로 옮겨 적었는데 이를 잘못 알고 작자를 김춘택으로 보았다. 이를 제외하면 이규경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씨남정기>가 장희빈 사건을 소설화한 '목적소설'로 본다면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인현왕후 폐출 시기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35]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는 작품을 해석한 후 이를 작자인 김만중의 삶과 연관시켜 추정하는 것과 인현왕후 폐출과 관련된 장희빈 사건과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의 창작 시기가 선천 유배 전이라는 것이다. 이때는 <사씨남정기>를 관음신앙을 내세운 불교 포교 소설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이 유배를 거듭 당하기 이전 만필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창·집필하던 시절에 창작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의미를 과도하게 불교사상으로 환원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창작 시기를 선천·남해 유배 이전으로 본 것은 『서포만필』의 하권이 남해에서 지어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36]고 하여 창작 시기가 선천 유배 전이라는 설을 반박한다.

두 번째로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가 선천 유배 후 모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이규경의 말을 따른다면 이 시기는 숙종 13년에서 14년으로 아직 인현왕후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사씨남정기>가 창작되었다

35)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출판부, 2001, p.202
36)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 및 시기 논란」,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2009, p.218.

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이규경의 주장과 모순된다.

마지막으로 <사씨남정기>를 남해 유배시기에 창작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작품이 창작 되었다고 한다면 김만중이 실제 궁중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과 그가 소망한 상상적 사실을 반영하여 창작한 부분으로 양분될 수 있다.[37] 김만중은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복위되기 2년 전에 죽었다. 그러므로 인현왕후의 복위 과정은 그의 상상적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가 '목적소설'이라는 목적소설론적 접근[38]이 창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창작 동기를 배경으로 이 작품이 인현왕후의 폐위와 관련된 장희빈 사건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면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는 남해 유배 기간일 것이다. 그러나 창작 동기를 정치적 사건이 아닌 처·첩 관계의 축첩제로 본다면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를 남해 유배 기간이 아닌 선천 유배 전이나 유배 후 모부인이 돌아가신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창작 시기에 대해 정확한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주장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의 예측에 의한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와 작품의 구성이 시·공간적 배경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실인 인현 왕후 폐출사건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자가 도덕적· 정치적 논리로 왕을 설득하지 못하자, 문학의 힘을 빌려 뜻을 이루려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39] 다만 작자의 삶과 시대적 상황, 정치적 입장 등을 통해 추측해 볼 뿐이다. 책에는 그 시대 상황이 반영 되므로 작가의 삶, 시대적·역사적 상황 등을 통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 창작 동기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김춘택과 이규경의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김춘택은 작자가 '축첩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부녀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여 당대 사회의 일반적 병리 현상 해소에 창작 동기가 있다고 한 반면, 이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

37) 김병국, 앞의 책, p.204.
38)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p.92.
39) 김은숙, 앞의 논문, p.14.

에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맞아들인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왕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풀이했다. 이는 장희빈 사건의 부당성을 일깨워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창작 동기가 있다고 한 것이다.[40]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훈을 목적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설이 있다.

이외에도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는 유배 상황에서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기 위해 지었다는 설, 관음신앙으로 부녀·대중을 교화, 구제하기 위해 지었다는 설, 작자의 삶의 지향 및 현실인식을 표현하려는 내적 욕구에서 지었다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사씨남정기>의 창작시기를 창작동기와 관련지어 김만중이 정치적으로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관련되어 귀양을 가면서 숙종의 성심을 깨우치기 위해 창작했다는 목적론적 입장에서 남해 유배 기간에 창작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 할 것이다.

40) 이원수, 앞의 논문, p.209.

## Ⅲ. 등장인물의 성격 비교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모티프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은 구성이나 줄거리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을 살펴보면 큰 줄거리는 첩으로 들어와 아들을 낳고 처를 모함해 본인이 처로 신분상승을 한 후 숙종과 유한림의 깨우침으로 다시 신분이 하강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주인공들의 성격이나 대응방식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의 배경 또한 <인현왕후전>은 숙종이 집권했던 시기 이지만, <사씨남정기>는 명나라 초기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숙종과 유한림, 인현왕후와 사씨, 장희빈과 교씨의 비교를 통해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숙종과 유한림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창작된 시기가 조선시대라고 볼 때, 숙종과 유한림은 조선 후기 가부장 사회의 대표적인 남성상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들의 판단이나 결정은 바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의 결과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인현왕후전>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씨남정기>는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에는 바로 숙종과 유한림이 존재한다. 숙종과 유한림이 이 두 여인의 사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승패가 결정된다.[41]

왕의 배우자인 왕비는 이미 한 개인의 아내가 아닌 국모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숙종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하여 규범과 질서를 무시한 채 장희빈에게 경도되어 규범의 수호자여야 할 그 자신이 규범을 무너뜨려갔다.[42]

두 작품 속에서 숙종과 유한림이 어떠한 성격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먼저 두 작품이 실제 인현왕후 폐출과 관련된 장희빈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 되었다고 전제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역시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이 서로 다른 작자에 의해 창작되었고 그 창작 시기나 창작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역시 차이가 있다.

숙종은 장희빈의 간계(奸計)에 넘어가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폐·복위 시키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경신환국[43], 기사환국[44], 갑술환국[45]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분란을 야기시켰다.

<인현왕후전>에서 나타나는 숙종의 모습은 독선적이고 감정적이다. 『숙종실록』에서 인현왕후의 폐위에 대해 많은 신하들이 이에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그는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다. 숙종에게 있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자신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은 곧 국사를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숙종은 자신이 인현왕후의 폐위를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모두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내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

41) 김신연, 「인현왕후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110.

42) 류수앙,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 강남대대학원, 2005, p.34.

43) 1680년(숙종 6) 서인인 김석주· 김익훈 등은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세 형제와 함께 역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고발, 옥사가 일어났는데 조정에서는 이들이 남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이들 세 형제를 처형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는다. 이를 경신환국이라 한다.

44) 1680년(숙종 6)의 경신출척(庚申黜陟)으로 실세하였던 남인(南人)이 1689년 원자정호(元子定號) 문제로 중전 민씨가 폐위됨으로써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고 원자 균은 세자에 책봉된다. 이렇게 노론계가 정치 일선에서 제거되자 서인은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조정에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정국의 주도 권은 민암, 이의징 등의 남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서인 대출척사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45) 1694년(숙종 20) 폐비민씨(廢妃閔氏) 복위운동을 반대하던 남인(南人)이 화를 입어 실권(失權)하고 론계의 송시열, 민정중, 김익훈 등의 관직을 복구시키고 소론계를 등용하여 정국 전환을 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갑술환국'이다.

대신과 이품(二品) 이상을 인견하사 폐비하심을 전교하시니, 좌승지(左承旨) 이시만이 불가함을 간하매 상이 진노하사 이시만을 파직하시고, 또 헌납의 이만원이 실조하심을 간하니 상이 익노하사 원찬하라 하시매, 이렇듯 대신 중신이 사십여인이 변지에 정배(定配)하고 또 비망기를 내리시니, 조정이 진경하여 일시에 정청을 배설하고 다투는 체하나 실정은 아니라.[46]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숙종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 생각하고 독선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와 같이 숙종은 어떤 문제에 당면해 이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독선적이고 감정적으로 처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숙종의 성격은 급했다.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이야기가 실록에 가끔 나온다.[47] 원자로 태어나 왕이 된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절대군주에게 필요한 전능감을 경험하면서 살았다.[48] 이러한 어린 시절은 숙종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록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반성을 할 줄 아는 왕이었다.

아! 사람의 심정이란 여러 차례 사변(事變)을 겪다보면 자연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인데, 더구나 십수년 이래로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음에랴? 그 까닭을 추구해 보건대, 이것은 내가 이치에 밝지 못한 잘못에서 온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기왕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몹시 매섭게 자책을 가하여 의심을 깨끗이 떨쳐 버리고 성의를 다 하려 노력하노라.

噫! 夫人之情, 累經事變, 自有懲毖之心, 況十數年來, 朝著之數數反復? 究厥所以, 寔予燭理不明之過, 予方深悔旣往, 痛自刻責, 快祛疑阻, 務盡誠意,

---

46) 정은임 교주, 『인현왕후전』, 이회문화사, 2004, p.31. 앞으로 본 작품의 인용 부분은 작품명과 쪽수만 인용문 뒤에 간단히 표기하기로 한다.
47)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6년 겨울), 역사비평, 1996, p.249.
48) 강현식,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살림, 2008, p.237.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 5월 4일)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밝히는 십행(十行)의 글을 이에 반포하니, 처음처럼 엄연(儼然)히 국모(國母)로서 엄하게 하매 오만 가지 것이 이에 바로 잡히게 되었다. 마치 고리가 돌듯이 오래 가지 않아 기쁨이 도로 돌아오게 되었거니와, 옥(玉)처럼 되려면 더욱 나아짐이 있어야 함을 알았노라. 천리(天理)와 인정을 알게 되었기에 상복(象服) 과 보명(寶命)이 유신(維新)해지게 된 것이다.

明吾過於旣往, 十行斯頒, 儼母臨之如初, 萬品乃正, 若環斯轉, 喜不遠而來歸, 庸玉于成, 知有資於增益, 天理人情之可見, 象服寶命之維新,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6월 1일)

위의 『숙종실록』에서 보듯이 숙종은 자신의 급한 성미로 생긴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품이 <인현왕후전>에서 인현왕후를 폐위 한 후 다시 복위 시키는 장면에 드러난다.

상이 후로 더불어 동좌하여 계시다가 후의 기색을 살피시고 전일 과실이 혼암함을 부끄러워하시고 장씨의 방자함을 통한하사, 즉시 외전(外殿)에 나오사 전지하여 후를 복위하시며 민부원군을 복관직하시고, 후의 삼촌 좌의정이 벽동 적소에 졸(卒)하신 고로 복관작 추증하시고 그 자신을 전 벼슬을 주어 부르시며 장씨의 아비는 삭탈관작하시고 빈의 옥책을 깨치시며

(<인현왕후전> p.59)

왕은 절대권력을 가진 인물로 어떤 결정을 하든 백성들은 그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권력의 소유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현왕후전>에서 숙종은 자신이 인현왕후를 폐위 할 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 숙종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

고 반성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는다.

또한 그의 성격은 변덕스러웠다. 이에 명성왕후는 숙종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다. 『숙종실록』에서 명성왕후는 숙종에 성격에 대해 인현왕후에게 장희빈에 의한 해악을 우려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

>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喜怒)의 감정이 갑자기 일어나곤 하는데, 사랑을 받는다면 나라의 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만약 꾐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오.
>
> 主上平日, 喜怒暴急, 若見寵幸, 則國家之禍, 有不可言, 內殿後當思吾言矣.
>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0일)

위와 같이 명성왕후는 숙종의 성격이 감정의 변화가 잦다고 했다. 어찌 보면 명성왕후는 숙종 대에 일어난 각종 정치적 사건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49] 이러한 정치적 사건 역시 숙종의 급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감정에 휩쓸려 일을 처리하고 후에 이를 반성하고 되돌린다. 이러한 숙종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인현왕후전>에서 숙종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했던 인물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치고 장희빈의 세력을 가까이 두었다. 그 결과 자신의 주변에는 간언(諫言)을 하는 신하는 없고 오직 감언(甘言)만 일삼는 간신(奸臣)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인현왕후가 복위되면서 신하들의 입장은 뒤바뀌게 되었다.

> 폐비(廢妃)시 간쟁하던 신하를 적소에 역마로 불러 화직을 주시고, 죽은 자는 충절을 생각하사 감루를 내리와 지체하시며 서원(書院)을 지어 춘추로 제향(祭享)하여 그 충절을 포장(褒奬)하사 후세에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 자손을 승직을 주시며 녹봉(祿俸)을 주사 부모처자를 살게 하시고 수초로써 그 일문을 위로하시니

49) 이종호, 『조선을 뒤흔든 아버지와 아들』, 역사의 아침, 2008, p.236.

은혜 영감(榮感)하온지라. 조야가 감축하며 열복하더라.

(<인현왕후전> pp.62~63)

숙종은 자신의 감정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된 충신들의 공을 인정하고 간신들을 내쳤다. 이러한 숙종의 모습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종의 성격을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유한림은 집안에서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렇기에 그는 집안의 과중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성격 형성과정에서 의존적이고 유아독존일 가능성이 크다.[50] 그렇기 때문인지 유한림은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통솔력 있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와 첩 사이에서 첩의 간계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인물로 보인다.

<사씨남정기>에서 유한림은 소극적이고 명분을 중요시 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그는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바라는 명분과 실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가부장으로서 통솔력 있게 가문을 관리해야 함에도 유한림은 리더십 있는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집안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51] 또한 유한림의 모든 판단에는 명분이 작용하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문제에 대해 합당한 명분이 생기면 이를 처리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씨남정기>에서 후사를 위해 첩을 들이는 문제, 교씨가 사씨를 모함할 때, 나라에 출사할 때 등 여러 장면에서 이러한 유한림의 성격이 드러난다.

먼저 유한림은 사씨와 결혼 후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사씨는 후사를 위해 첩을 들이지고 유한림에게 청한다.

"어찌 무자함을 한탄하여 첩을 얻으리요, 첩을 얻음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인

50) 한석수, 「사씨남정기 창작배경 재고 - 단암말록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9집, 개신어문학회, 2009, p.13

51) 주경은,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3.

즉, 부인은 어찌 화를 자초하려 하시느뇨? 이는 만만부당하여이다.[52]

한림에게 매파의 하던 말을 전하고 데려오기를 강권하니, 한림이 가로되, “내 첩둠이 그리 급하지 아니하나 부인의 호의를 저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택일하여 데려오리라.”

(<사씨남정기> p.27)

위와 같이 유한림은 첩을 얻음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첩을 두는 것은 이러한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부인이 후사를 위해 첩을 얻기를 강권하자 마지못해 첩을 들인다. 이미 첩이란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가정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유한림은 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교씨의 간계에 넘어가 사씨를 내친다.

이러한 모습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유한림이 명분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후사를 얻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에 처음에는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해서 첩을 들이는 일에 대해 거절했으나 사씨가 거듭 후사를 위한 다는 명분을 내세우니 이에 사씨의 청을 허락한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소극적이면서도 명분을 중요시 하는 유한림의 성격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유한림은 교씨가 사씨를 모함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가정의 분란을 야기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넘어간다. 그의 이러한 성격이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이 된다.

‘제 늘 투기하지 않겠노라 하고 또 교씨를 대접하기를 후히 하야 한 번도 단처(短處)를 이름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가내에 무슨 여고가 있도다.’하고 교씨를 위로하야 가로되, “저를 취함이 다 부인의 권한 바요, 일찍이 부인이 너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야 한 번도 낯빛 변함을 보지 못하엿으니, 이는 아마 비복들

52) 김만중, 박정수 옮김,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청목, 2003. p.24. 앞으로 본 작품의 인용 부분은 작품명과 쪽수만 인용문 뒤에 간단히 표기하기로 한다.

이 참언(讒言)을 주출(做出)함이라. 부인은 본대 유순하니 결코 네게 유해함이 없을지니, 너는 부질없는 염려를 말고 안심하라.”

(<사씨남정기> p.35)

유한림은 사씨의 말을 듣고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교씨를 위로 할 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분명 첩이 들어오면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이에 교씨가 사씨를 계속 모함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아직 명백한 물증이 없으니 어찌 다스리며 또한 선상공이 사랑하시던 바요, 숙모 힘써 말하시니 가장 어려운 일이라 어찌하리요.”

(<사씨남정기> p.52)

또한 교씨의 간계로 옥지환이 없어졌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유한림은 교씨에게 물증이 없으니 사씨를 내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두 부인이 사씨에 대한 사건이 잘못되었다 하니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유한림이 얼마나 의존적이고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다만 물증이 없고 선친과 두 부인에게 의존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씨의 모함으로 인해 차츰 사씨를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쌓이자 그는 이 명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사씨를 내친다. 명분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은 주위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명분의 참·거짓을 따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한림이 일가 친척들을 모두 청해놓고 사씨의 전후 죄상을 이르고 기어코 쫓아낼 것을 말하니, 모든 사람이 본대 사씨의 친절함을 알고 모두 한림의 망령(妄靈)임을

짐작하나 모두 한림에게 먼 일가 아니면 수하 사람이라, 뉘 즐거이 고집을 부려서 한림의 뜻을 거스리요, 그래서 모두 가로되, “이는 한림의 생각대로 처리할 것이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겠노라.”

(<사씨남정기> pp.62~63)

그는 처음으로 가부장의 면모를 보인다. 그 누구도 자신의 판단에 반대할 여지를 주지 않고 명분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교씨의 간계에 속은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내세운 명분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고 사씨를 내쫓은 사실에 대해 후회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씨를 다시 맞아들이면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여준다.

또한 유한림은 15세이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총명했다. 그러나 그는 엄승상의 세도에 출사를 하지 않는다. 선비라 하면 잘못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는 잘못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출사를 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으로 엄승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항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사씨에게 빌미가 되어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한림이 병을 칭탁하고 조정에 들어가지 아니한지 오래매 혹 벗을 찾아다니더니, 동청이 우연히 한림의 책상 위에서 한 글을 얻어내니 이는 곧 한림이 지은바라.…(중략)… “저적에 천자께서 조서를 내리사 ‘나의 기도하는 것을 간하느 신하는 곧 죽이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 글을 보매 시절을 두고 기롱(譏弄)하여 엄 승상을 강악한 소인에 비하였더니,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엄 승상을 뵈면 엄 승상이 천자께 아뢰어 법으로 다스리리니,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백년해로를 못하리오.”

(<사씨남정기> pp.95~96)

이렇게 유한림은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충분히 출사를 할 수 있음에도 병을 청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현 세태에 대해 비판한다. 직접적으로 출사를 해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힌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유한림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명분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서 숙종과 유한림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물론 두 작품이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창작 되었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숙종은 성격이 급하고 독단적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줄 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 잡는 반면 유한림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명분을 중시한다. 이런 소극적인 그의 성격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를 후회 하여 결정을 번복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 2. 인현왕후와 사씨

인현왕후와 사씨는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여, 가정을 잘 다스리고, 효와 덕이 뛰어난 인물을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서 인현왕후와 사씨로 나타내고 있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후가 즉위하사 양전대비를 효양(孝養)하시매 출천(出天)한 성효(誠孝) 동동촉촉하시고, 상(上)을 받들어 내조(內助)를 다스리시매 덕으로 인도(引導)하사 유순정정(柔順貞靜)하시며, 비빈궁녀를 거느리시매 은위병향하사 선악과 친소를 사이두지 않으시고, 애인(愛人)하시는 화기(和氣) 봄동산 같으며, 만물이 부성하는 듯 하여 예절과 법도가 엄숙강맹하시니 감히 우러러 뵈옵지 못하고, 궐중이 성덕을 흠탄하여 예도숙연 하시며, 입궐하신 지 삼사 삭에 교화(敎化)가 대치하여 화기애연하니, 양전 대비 극진히 야중하사 국가 복이라 축수(祝手)하시고 상이 공경중대하시며 조야(朝野)가 다 흠복하더라.
>
> (<인현왕후전> pp.24~25)

> 사씨 이로부터 효도를 다하야 존구를 받들고, 공순함으로써 군자를 섬기고, 정성으로써 제사를 받들고, 은혜로써 비복을 부리니 규문(閨門)이 옹옹(雍雍)하고 화기가 애애하더라.
>
> (<사씨남정기> p.22)

이와 같이 인현왕후와 사씨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잘 받들며 아랫사람들에게 자애로웠다. 인현왕후와 사씨가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인품이 너그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너그러움은 자신들의 지위가 그들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53] 그러나 『숙종실록』에서와 <인현왕후전>의 기록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인현왕후전>에서는 온화하고 덕이 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반면 『숙종실록』에서는 투기를 일삼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인현왕후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

"말세(末世)로 올수록 인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내가 당한 것 같은 일이 있겠는가? 경들에게 발본 색원(拔本塞源)할 뜻이 있으니, 나도 말하고 들은 것이 있다. 궁위(宮闈)에【중궁(中宮)을 가리킴이다.】관저(關雎)의 덕풍(德風)은 없고 투기(妬忌)의 습관이 있어서 병인년 희빈(禧嬪)이 처음 숙원(淑媛)이 될 때부터 귀인(貴人)에게 당부(黨付)하였으며, 분을 터뜨리고 투기를 일삼은 정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중략)… "원자(元子)가 탄생하자 더욱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실로 이는 뜻밖이다.' 하였다. 일찍 국본(國本)을 정한 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世降俗末, 人心漸惡, 然豈有如予所遭乎? 卿等旣有拔本塞源之意, 予亦有所欲言者。宮闈之間,【指中宮也.】無《關雎》之風, 有妬忌之習。 丙寅年間, 自禧嬪初爲淑媛之後, 黨於貴人, 憤恚妬嫉之狀, 不可勝言 …(중략)… 元子旣生, 滋益不悅曰: '實是意外, 日者早定國本。' 意有在耳.

(『숙종실록』20, 숙종15년 4월 21일)

<인현왕후전>의 창작 동기가 인현왕후의 성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작품에서는 인현왕후의 나쁜 점은 배제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숙종실록』의 기록은 시기상 숙종이 장희빈에게 빠져 인현왕후를 폐위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에 감정적으로 인현왕후를 투기를 일삼고 장희빈이 낳은 아이도 기쁜 마

53) 정두희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소나무, 2004, p.177.

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현왕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인현왕후전>과 『숙종실록』의 기록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현왕후전>과 『숙종실록』에서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상반되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인현왕후의 성품이 현재의 평가와 달리 투기를 하거나 악독한 면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현왕후는 철저히 규범을 중시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을 지녔다. 그녀는 행동을 행함에 앞서 그 행동이 규범에 옳고 그른지를 따랐다. 이렇게 규범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신분이 크게 작용 했을 것이다. 왕비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그녀는 당당히 행동할 수 있었다. 『숙종실록』에 보면 그녀는 명성왕후에게 장희빈이 임금의 은총을 받았으니 다시 궐로 들이자는 건의를 했다.

> "임금의 은총을 입은 궁인(宮人)이 오랫동안 민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미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 "承恩之宮人, 久在閭閻, 事體極未安, 宜復召入"
>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0일)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규범을 중시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의 성격과 더불어 자신의 위치에서 비롯된 자신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현왕후전>에서도 이러한 그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 이때 궁녀가 다 권세를 따르고 은총을 구하는지라. 후의 형세 외로와 업수이 여기며 언어 방자하고 행지 교만(驕慢)하여 조금도 존경하는 법이 없이 양양자득하나, 후가 지이부지하시고, 좌우에 모신 궁녀가 불승경분하되 죄를 두려 감히 말을 못하고 구석구석이 머리를 마초아 체읍(涕泣)하며 설워 할 때름이라. 한 궁녀가 장씨의 가르침을 들었는 고로 앞에 나아와 옷을 뒤려 하거늘, 후가 문득 천연히 웃으사 옷을 풀어 보이시며 쌍안(雙眼)으로 궁녀를 흘려보시니, 맑은 광채 일광 같아여

사람의 오장을 보는 듯 말씀을 아니하시나 기상의 엄정(嚴正)하심이 추상같으시니, 궁녀가 부끄럼고 송연하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니 좌우가 더욱 어려이 여기더라.

(<인현왕후전> p.41)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궁녀들이 인현왕후에게 불경하게 대했으나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보이며 자신의 기상을 보였다. 폐위되는 상황이지만 패악을 부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한다. 이 역시 인현왕후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호한 성격은 자신의 당당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숙종실록』에서 보면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기록이 있다.

'너는 마땅히 전교(傳敎)를 잘 받들어야만 하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이후로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

"汝當奉承傳敎, 何敢如是?" 自後, 內殿凡有使令, 偃蹇不恭, 至或呼之而不應。 一日, 內殿命撻之, 益懷怨毒,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0일)

장희빈은 왕이 총애하는 후궁임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런데 장희빈이 자신의 명을 무시하고 내명부의 기강을 떨어뜨리자 단호히 종아리를 때렸다. 궁에서 여인들의 일을 관할하는 것은 내명부이고 이 내명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현왕후다. 그녀는 숙종이 총애하는 후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하게 내명부의 기강을 떨어뜨린 죄를 물은 것이다.

이러한 인현왕후의 단호한 성격은 <인현왕후전>에서도 드러나는데,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하며 생활한다. 후에 숙종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 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이를 단호히 거절 한다.

"죄인이 어찌 문외지인(門外之人)을 접하며 감히 어찰을 받으리요."

"죄인이 천은(天恩)으로 인명이 살았은 즉, 그도 황감하온대 어찌 국명(國命)을 받자며 번화히 사람을 인접(引接)하리요. 사명(使命)이 여러번 내리니 더욱 불안하여이다."

"너희는 다만 돌아가 죄첩이 답서 아룀이 불감하와 못하나이다 아뢰라."

"천은이 망극하니 어찌 감히 거역하리요마는, 천궁기물(天宮器物)이라 여항(閭巷) 둠이 불감(不敢)하고 더욱 대전 금침(衾枕)과 반상이 일시나 사가(使家)에 두리요. 외람하여 감히 받들지 못할지라 도로 가져가라."

(<인현왕후전> pp.49~53)

인현왕후는 자신이 죄인임을 내세워 이러한 모든 청을 단호히 거절한다. 어떻게 보면 인현왕후는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폐위되었음을 알리고, 숙종에게 계속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숙종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단호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고 숙종에게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녀의 이런 단호한 성격은 복위되고 병상에 있을 때도 드러난다. 인간은 몸에 병이 들면 정신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커지게 마련이다.[54] 병이 들면 자신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도, 잘못을 훈계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자신보다 숙종을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며 단호히 행동한다.

상이 적년(積年) 고생에 저상하여 고질이 되심인가 더욱 뉘우치시고 차석하사, 후의 기상이 너무 빠혀나시니 행여 단수하실까 염려하사 용안을 능히 펴지 못하시

54) 이정희, 「<인현왕후전>의 문학교육적 성격 연구 -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p.44.

니 후가 불안하사 매양 아픈 것을 강작하시더니,

(<인현왕후전> p.68)

민판서 형제 약을 잡고 병측에 모셔 지성으로 하니 후가 보실 대마다 슬퍼 체읍하시며 아우와 조카를 경계하여 가라사대, “너희 벼슬이 높고 명고(名高)함을 근심하나니 직업을 명찰하며 행신(行身)을 극진히 하여 선인의 청덕(淸德)을 떨어버리지 말고 보신지책을 힘쓰고 충의를 효칙하라.”

(<인현왕후전> p.70)

인현왕후는 병석에 있을 때도 단호히 행동한다. 자신의 병 때문에 숙종이 걱정하니 이를 감추고, 또 자신의 아우와 조카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로 단호히 대처한다. 자신의 몸만 생각하기도 벅찰 텐데 그녀는 자신보다 자신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

사씨는 냉정하고[55]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사씨남정기>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가문에서 내침을 당했을 때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나서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며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성격은 가문 안에 존재 하고 있을 때 잘 잘 드러난다. 자신이 대를 잇지 못하자 첩을 들이고, 가문에서 내침을 당하고 아이를 떠날 때도 유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또한 교씨가 죽기 전 자신에게 목숨을 청할 때도 그녀는 덕이 있는 자애로운 부인이 아닌 냉정하게 행동한다.

먼저 그녀는 자신에게도 명분을 따지며 엄격하게 행동한다. 자신에게는 너그러울 만도 한데 그녀는 자신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냉정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것은 그녀가 첩을 들이라 청하는 부분에 드러나 있다.

55)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3, 휴머니스트, 2008, p.95.

"첩이 어찌 감히 옛적 성인을 바라리까마는 세속 부인들이 인륜을 모르고 질투를 일삼아 가도(家道)를 문란케하는 이가 많음을 한탄하는 바이오니, 첩이 비록 용렬하오나, 어찌 이런 행실을 하리까? 그리고 또 군자 만일 몸을 돌보지 않고 요미(妖迷)한 색에만 침혹(沈惑)하오면 첩이 정성을 다하야 간하고자 하나이다."

(<사씨남정기> p.26)

그녀는 한 가문의 안주인이자 가문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씨에게 가문의 번영을 위해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자 그녀는 젊은 나이 임에도 첩을 들이기를 청한다. 그리고 첩을 들이면 가문에 불화가 있을 것이라는 두 부인의 말에 첩에게 투기를 하지 않고 유한림이 첩에게만 빠져 있다면 자신이 이에 대해 유한림에게 간한다[56]고 하며 자신이 결정한 바와 같이 냉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가문에서 내침을 당할 때 역시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 처음 자신을 모해하는 소리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역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담담하게 떠난다.

부인 안색을 변치 않고 천연히 가로되, "내 이일이 있을 줄 안 지가 오래도다."

(<사씨남정기> p.62)

사씨는 판단이 명확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득인지 냉정하게 판단한다. 이에 유한림이 가문에서 자신의 죄상을 열거하며 내칠 때도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며 가문을 떠난다.

또한 사씨의 냉정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교씨가 죽기 전 자신에게 목숨을 살려 달라 청할 때 이다.

---

56) 사씨는 어릴적부터 『소학(小學)』, 『여사서(女四書)』, 『열녀전(烈女傳)』, 『내훈(內訓)』, 『사소절(士小節)』 유교적 교육을 받아왔다. 『내훈』4 '부부'장을 보면 "남편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 곡절에 대해 간하고, 이해(利害)를 펴 가면서 말하되 온화한 안색과 순한 말씨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크게 화를 내거든 담시 후에 다시 간하며, 비록 대나무로 만든 채찍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어찌 원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사씨는 『내훈』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이 잘못하면 자신이 정성을 다해 간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이다.

“첩이 실로 부인을 저버렸거니와, 오직 부인은 대자대비하신 덕으로 천첩의 잔명을 보존케 하옵소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네 나를 헤하려 함은 죽을 죄 아니나 상공에게 득죄함을 내 어찌 구하리요.” 상서 더욱 노하야 이에 시비를 명령하야 교녀의 가슴을 헤치고 심통을 빼라 하니, 사 부인이 가로되, “비록 죄 중하오나 상공을 모신 지 오래니 죽여도 시체를 완전히 하소서.”

(<사씨남정기> p.130)

교씨는 사씨의 덕에 의존하여 자신의 목숨을 살려 달라 청한다. 그러나 사씨는 나를 죽이려 한 것은 괜찮지만 유한림에게 죄를 지은 것은 죽을죄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다. 이는 그동안의 사씨의 행동과 상반된다. 다시 가문의 경영자로 돌아가 가문의 가장인 유한림에게 한 죄는 어쩔 수 없다 하여 냉정하게 교씨의 청을 거절한다.

이렇게 사씨가 가문 안에서 존재할 때 그녀는 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덕으로 가문을 이끌면서 가문의 유지를 위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가문 안에서의 사씨는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가문 밖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유씨 가문과 혼사 역시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색을 천히 여긴다’하며 청혼을 거절하는 등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가문에서 폐출 당한 후에도 그녀는 의기소침하거나 실의에 빠져 있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결국 그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사씨는 가문에서 내침을 당해도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 인연이 끊어지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하며 시부모의 묘하로 간다. 그녀는 가문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 지 판단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자살을 결심할 때도 그녀는 증거와 증인을 남

긴다. 죽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 "각각 몸을 보중하였다가 북방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곳에서 죽은 줄을 알게하라."하고 이에 나무를 깎아 글을 쓰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구가의 출부되어 이에 이르러 물에 빠져 죽노라."
>
> (<사씨남정기> p.83)

사씨는 후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을 예견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다. 어떻게 보면 사씨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사씨의 힘겨운 노력이었다. 그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은 그녀의 적극적 성격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녀가 결국 가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가문에서 내침을 당한 후 행한 모든 일은 사씨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녀가 시부모의 묘하에 있었던 것도 그녀의 자발적 선택이었고, 남정을 하게 된 것도 시부모의 현몽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예견한 사씨의 능동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가문에서 내침을 당한 후 위축되거나 실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등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물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가문에서 내침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녀가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은 그녀의 이러한 성격을 가로 막았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현왕후와 사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교 사회를 살아가는 여인으로, 또 처의 입장에서 두 사람 모두 명분과 실리를 중시한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인현왕후는 규범을 중시하고 자신감 있으며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규범을 중시하면서 그 규범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당당하게 대처한다. 또한 그녀는 현실에 무조건 순응하는 그런 소극적인 여인이 아니다. 인현왕후는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사씨가 가문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와 가문 밖에서 위치할 때의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문 속에서 사씨는 가문의 안주인이자 경영자로 가문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냉정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가문 밖에서 그녀의 성격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가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매사에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결국 그녀를 다시 가문의 안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 3. 장희빈과 교씨

장희빈과 교씨의 악독은 계급사회가 빚은 폐해였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생태계의 논리라 하지만 가진 자는 항상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빈곤을 면치 못하는 쓸데없는 공론(空論)과 파벌이익에 집착해 온 사대부 양반 지배계층의 독점적 관료집단에 의한 모순된 체제는 힘이 없고 약한 백성의 착취, 부패사회 풍토를 조성했고 따라서 천시와 학대에 시달림을 받아 온 피지배계급의 핍박을 받는 평민의 한(恨)은 컸었다.[57]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장희빈과 교씨 역시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서 장희빈과 교씨는 악녀로 그려져 있다.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두 작품의 창작동기가 인현왕후 폐위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인현왕후와 사씨를 중심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다.

장희빈의 숙부 장현(張炫)[58]은 비록 중인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조사석 집안의 여종이었다. 서녀(庶女)였던 장옥정 자신은 모계신분을 따르는 종모법에 따라 미천한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59] 장희빈은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57) 임중웅, 『다시보는 조선왕조 왕비열전』, 석천미디어, 2002, pp.241~242
58) 『숙종실록』(숙종실록17, 숙종 12년 12월 10일)'에서 장현은 중인이었으나 '국중(國中)의 거부'로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과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枏)의 심복이라 기록될 정도로 부자였다. (初譯官張炫, 以國中巨富,,爲楨枏心腹)
59) 최선경, 『왕을 낳은 후궁들』, 김영사, 2007, p.98

자의대비전 나인으로 궁에 입궐한 것이다.

이렇게 궁에 입궐한 장희빈은 당당하고 감정에 솔직한 성격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하다. 또한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정해 놓은 정도를 벗어나 악인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장희빈의 당당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그녀의 성격은 그녀의 삶을 후궁에서 왕비 그리고 다시 후궁으로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다. 숙종은 궁녀로 들어온 장옥정이 여느 궁녀처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것을 보고 그녀를 선뜻 지목했다. 임금 앞이라면 당상 당하관들도 설설 기는 시대에 일개 궁녀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60]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숙종은 장희빈을 단순히 색을 취하기 위해 후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전교하기를, "장씨(張氏)를 숙원(淑媛)으로 봉하라." 하였다. 정언 한성우(韓聖佑)가 상소하니, 답하기를 "지금 장씨에게 봉작(封爵)하는 것은 실상 전례에 의한 것이다. 지난번 이징명(李徵明)의 소에 대한 비답 가운데 잘못되었던 한 조목에 관하여는 나의 의사를 경연에서 모두 자세히 말하였는데도, 이번 한성우의 소 가운데 '전(殿)에 납시던 날 끝까지 한 마디 말씀을 아꼈다.'고 한 것은 더욱 실상과 틀린 일이고, '미색(美色)을 좋아하고 총애 때문이라는 설에 이르러서는 억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시 궁인들 중에 음흉한 것들이 사부와 짜고서,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내어 임금을 모함하는 까닭이니, 한성우의 본직(本職)을 체직하라." 하였다.

> 傳曰, "以張氏爲淑媛." 正言韓聖佑疏. 答曰, "今玆封爵. 實有前例. 頃者徵明批中. 謬戾一款. 備悉意於筵中. 而疏中臨殿之日. 終靳一命云者. 尤是爽實. 至於其色其寵之說. 可謂臆逆. 必是宮人中陰凶之徒. 締結士夫. 構虛陷主之致. 本職許遞."
>
> (『연려실기술』35, 숙종조고사본말)

『숙종실록』에 보면 윤상궁이 임금 앞에서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어찌해 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까?"했다.(『숙종실록』3, 숙종 원년 4월 1일)는 기록이 있다.

60) 박기현, 위의 책, p.121.

이는 궁인들이 궁궐에서 왕과 관료들 가까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을 하며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61] 그렇다면 장희빈 역시 임금이 총애하는 궁인으로 당당하게 숙종의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 후궁으로 책봉되어 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인현왕후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 궁인 장씨 시비(侍婢)로 후궁에 참예하여 희빈을 봉하니 간교하고 민첩혜힐하여 상의(上意)를 영합하니 상이 극히 총애하시더라.
>
> (<인현왕후전> p.27)

장희빈이 간교하고 민첩혜일하여 숙종의 뜻을 영합했는 것을 숙종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태를 부린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위에서와 같이 숙종의 뜻을 잘 읽어내어 숙종이 하려고 하는 바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당하게 조언을 하는 조력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희빈의 당당한 성격은 장희빈을 궁녀에서 후궁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겉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것은 그녀의 당당함이 너무 지나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성격은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왔을때 잘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자신이 분명 왕비인데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자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장희빈은 현재의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몰랐고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 "내 오히려 곤위(坤位)에 잇거늘 폐비 민씨 어찌 문안치 아니하느뇨. 크게 실례하며 방자함이 심하도다."
>
> "내 대위에 있거늘 어찌 폐비 문안을 아니하며 내 무삼 죄로 하당에 내리라 하시나이까."
>
> "세자 있으니 내 어찌 어위를 못 가지리요. 기어이 민씨의 절을 받고 말리라."
>
> (<인현왕후전> pp.59~60)

61) 정두희 외, 위의 책, p.158.

장희빈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현왕후에게 문안을 받는 것으로 해소시키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왕비가 되고 싶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인물인 인현왕후를 제거한 것이다.[62] 그런데 과거에는 당당하고 솔직한 그녀를 좋아했던 숙종이 갑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이 중전이기 때문에 폐비의 문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어찌 되었든 아직까지는 자신이 중전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왕이 폐비 사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후궁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 인현왕후에게 돌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정을 분출한다.

이렇게 당당하고 감정에 솔직한 그녀의 성격은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당시 장희빈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장희빈은 그저 천하의 요부에 악녀이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장희빈을 바라본다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여성인 것이다.

교씨는 사족의 딸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교씨의 이러한 노력은 현실에 적극적이면서 즉흥적인 성격을 보여준다.[63] 그녀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씨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족의 딸이지만  스스로 선비의 아내보다 재상가의 첩이 되려한다. 가난한 가정생활이 그녀를 명예를 따르기보다 부를 선택하게 한다.[64]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성격은 후사를 잇기 위한 유한림의 첩이 되면서 이루어진다.

---

62) 이정희, 위의 논문, p.37.
63) 이상일,「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국어교육연구』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p.129.
64) 조지영, 위의 논문, p.21.

제 스스로 말하기를 가난한 선비의 아내 되느니보다 공후부귀가(公侯富貴家)의 첩이 되는 것이 좋다 하오며

(<사씨남정기> p.27)

교씨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공후부귀가의 첩이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그 결과 이것이 후사를 잇기 위해 첩을 구하는 사씨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유한림의 첩이되었다.

또한 교씨는 자신이 유한림의 첩이 된 것이 후사를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므로 예전으로 돌아갈까 걱정스러워 한다.

"상공께서 나를 취하심은 한갓 색을 취하심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위하심이어늘, 내 만일 딸을 낳으면 아니 낳음만 같지 못하니 장차 이를 어찌하리요?"

(<사씨남정기> p.29)

그래서 교씨는 임신을 한 후에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점술가를 불러 태아의 성별을 묻고 복중 태아를 남아로 바꾸는 부적을 쓰는 등 아들을 낳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은 아들을 낳은 후 집안에서의 입지를 다지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유한림의 사랑이 식을까 거문고와 노래를 배우는 등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교씨의 적극적인 성격은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교씨는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어릴 적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형의 집에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이다. 교씨의 어린 시절은 그녀에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성격을 형성시켰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거짓을 꾸민다.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교씨는 아들을 낳고 나서 가문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사씨의 임신이란 자신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불안한 요소이다. 만일 사씨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는 더 이상 소용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아직 사씨가 아들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씨의 아이를 없애고자 일을 꾸민다.

> "교씨 홀로 시기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야 앙앙불락(怏怏不樂)하며 납매와 짜고 낙태할 약을 여러 번 사 부인 먹는 약에 타서 드렸으나,
>
> (<사씨남정기> p.36)

교씨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함에 결국 사씨의 아이를 없애고자 납매와 더불어 일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교씨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시작된 행동은 점점 불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러한 즉흥적인 행동들은 사씨가 득남을 하게 되자 최고조에 이른다. 교씨는 사씨가 후사를 잇게 되자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끼며 모성애도 망각한 채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이면서 모함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65] 그녀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보다 자신의 욕망이 먼저였다.

> 장주의 유모가 장주의 오래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괴히 여겨 나아가 본즉, 입과 코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지 이미 오래어늘 크게 놀라 통곡하니, 교녀 창황히 달려와 구코자 하나 무가내하(無可奈何)라. 이 분명 동청의 소행인 줄 알고 그 RHl를 실행코자 하야 급히 한림께 고하니,
>
> (<사씨남정기> p.59)

교씨는 자신이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아들에 대한 모성애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한지 이를 사씨가 벌인 일이라 고한다. 이렇게 즉흥적인 판단으로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 하지

65) 오경숙, 「사씨남정기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0, p.42.

만 거짓말이란 결국 밝혀지는 것이다. 점점 불어나는 거짓말에 교씨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유한림에게 들킬까 걱정을 한다.

교씨는 유한림이 침벽에서 나무로 만든 사람을 찾아내고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르자 또다시 불안해 진다. 그녀에게 '처'의 자리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이었다. 또 다시 죄를 덮기 위해 동청과 짜고 유한림을 귀양 보내고, 동청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가, 다시 냉진에게로, 결국 창기로 가난이 싫다는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임기응변식의 즉흥적인 일들을 꾸민다.

결국 사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유한림 역시 일의 모든 전말을 알고 교씨를 잡기에 이른다. 자신의 죄가 모두 밝혀지자 그녀는 살기위해 사씨에게 목숨을 살려달라 애걸하고 죄를 설매와 동청이 한 일이라 말하면서 또 즉흥적으로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한다.

> "이 모두 첩의 죄오나 장주를 해함은 설매의 일이요, 도적을 보냄과 엄숭에게 참소함은 동청의 일이로소이다."
>
> (<사씨남정기> p.129)

교씨는 마지막 까지 자신의 죄를 동청과 설맹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즉흥적인 성격과 행동들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은 그녀의 욕망을 실현 시켜주는 매개체 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한다. 결국 그녀의 적극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그녀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장희빈은 궁인에서 후궁, 왕비, 다시 후궁으로 도저히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당당하고 감정에 솔직한 성격이다. 이러한 당당함이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솔직함이 그녀를 나락으

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여성이다. 교씨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현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성격이 결국 그녀를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 Ⅳ. 현실 대응 양상 비교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들을 당시 유교 가부장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인 숙종과 유한림의 행동과 결정은 당시 나라와 가정을 이끄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여성들의 삶이 좌지우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좁게는 가문을 이끌고 크게는 나라를 이끄는 숙종과 유한림은 결단력이 없었다.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한쪽의 말만 믿고 행동했다. 그들의 결정에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충언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단지 현재 자신의 기분만을 중요시 하며 행동을 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를 하고 또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번복하게 된다. 이러한 우유부단한 행동이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씨와 교씨가 삶을 살아가고 당시 현실에 대응하는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이 선과 악으로 행동을 하게 한 1차적인 원인은 당시 조선조 유교적 사회의 '신분차별'의 문제였고 2차적 원인에는 이런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동기를 마련해준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이 바탕이 되었다. 그들의 단호하지 못한 성격과 안이한 대처방법은 장희빈과 교씨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이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가문의 존속과 유지라는 중세의 윤리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이고 교씨는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실현에 더욱 비중을 두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66]여기에서는 위 두 원인을 바탕으로 작품속의 여자 주인공인 인현왕후와 사씨, 장희빈과 교씨의 현실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66) 이상일, 앞의 논문, p.122.

## 1. 사회적 질서 수용

인현왕후와 사씨는 유교적 사회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인물상이다. 재덕(才德)을 겸비하고 마음 씀씀이 또한 고와서 모든 이들의 우러름을 받는다. 그녀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질서와 체계를 수용하며 살았다. 무조건 유교적 사회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은 유교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사회적 질서 수용으로 두고 생활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인현왕후와 사씨의 삶은 도덕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본능을 억제하며 일생을 사는 규범적 인물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녀들은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 신분제 사회에서 멸시 받거나 무시당하며 살지 않았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유교적 덕목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교육 받고 익혀온 유교적 관습이 행동에서 베어 나왔다. 때문에 장희빈의 모함도 남편의 우유부단한 행동도 당시 유교적 사회 현실 역시 수용할 수 있었다.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두 작품에서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결과 인현왕후와 사씨가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1) 가부장제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정절과 수절·부덕(婦德)을 강조했다. 또 여성을 유교적 사회 질서에 적합한 이상형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많은 교육서를 저술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당연하게 유교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당시 시대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타고난 신분 계층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때였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가부장제 유교 사회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그 체제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신분은 양반계층이고 또한 지배 계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혼 역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가문을 위함이었다. 가문이 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상대의 가문

을 살피고 용모와 행동거지 또한 현숙하고 덕망 있는 처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인경왕후가 승하하고 인현왕후는 숙종의 계비로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그녀의 신분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왕비의 지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현왕후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혔던 유교적 도덕적 윤리관에 입각해서 본능을 억제하며 살았다. 그녀가 별다른 노력 없이 태어나면서 가진 신분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다. 이러한 신분은 그녀가 궁중 예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노력하고, 한 나라의 국모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여자로서 안으로는 조강지처의 자리에, 밖으로는 왕비의 자리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었다. 왕을 보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었고 백성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었다. 그러니 그녀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씨 역시 용모와 행함에 있어서 덕행이 있고 유교적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이에 유한림의 부인이 될 수 있었고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부인으로 가문을 이끌 수 있었다. 혼인 전 그녀는 매파가 유씨 가문의 부귀, 유한림의 풍채를 자랑하고 유씨 가문에서 사씨의 용모와 재덕을 높이 사서 청혼하노라 한다는 말을 듣고 혼담을 거절한다.

> “유 상공은 당세 어진 재상이라 더불어 결친함이 미위불가(未爲不可)이오나, 듣자오매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색을 천히 여긴다’하였거늘, 이제 주파의 말을 듣건대 먼저 자색을 일컫는 것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다만 저의 집 부귀만 자랑하고 선친의 청덕은 일자 일컬음이 없사오니, 이것은 주파가 무상하여 그릇 전함이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일 유공의 뜻이 그렇다하면 유공의 어진 이름은 헛된 소문에 불과하오니, 소녀 그 집으로 출가함을 원치 않나이다.”
>
> (<사씨남정기> p.19)

이는 사씨가 유한림의 집안에서 자신의 가문의 부귀를 자랑하고 자신의 용모와 재덕 때문에 청혼을 한다고 하는 유씨 집안과 매파의 결례를 나무라며 혼인을 거절하며.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긍심을 보인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 자신과 긍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대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처리할 수 있었고, 그녀가 유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후 가문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현왕후와 사씨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자신이 신분으로 인한 지위 덕분에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지배계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더욱 사회 질서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관에 맞춰서 행동해야만 했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한없이 어질고 착해 가정을 화목하게 잘 다스렸다. 하지만 아무리 가정을 잘 이끌어나간다 하더라도 당시 가정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출산이었다. 한 가문의 며느리로 아내로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야 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역시 칠거지악(七去之惡)[67]의 하나였다. 그만큼 당시 사회가 가부장 사회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한없이 어질었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첩을 들여 후사를 보게 하였다. 그들은 유교 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한 가문의 정실부인으로서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유교 사회에서 '칠거지악'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세우며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첩으로 들어온 장희빈과 교씨가 아들을 낳고 지아비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도 이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같이 생각했다.

---

67) 婦有七去 며느리에게는 일곱 가지 내칠 사유가 있는데 이를 칠거지악이라 한다.
① 不順舅姑去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친다 ② 無子去 자식이 없으면 내친다
③ 淫去 음란하면 내친다 ④ 有惡疾去 나쁜 병이 있으면 내친다
⑤ 妬去 투기하면 내친다 ⑥ 多言去 말이 많으면 내친다 ⑦ 竊盜去 도둑질하면 내친다

차세 동시월(冬十月)에 희빈 장씨 처음으로 왕자를 탄생하니 상의과애(上意過愛) 하심은 이르지 말고 후가 대열(大悅)하사 어루만져 사랑하시기를 기출같이 하시니,

(<인현왕후전> p.29)

사씨 또한 사랑함이 극진하야 조금도 기출(己出)과 다름 없으니 집안 사람들도 그 아이를 누가 낳은지 알지 못하더라.

(<사씨남정기> p.30)

인현왕후와 사씨는 첩이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괴로움이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관대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가문의 후사를 잇게 된 경사를 기뻐했던 것이다. 개인의 고통이야 어떠하든 가문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대를 잇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더욱이 조선 사회는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해 가문의 번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현왕후와 사씨는 첩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보다 가문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더 큰 위미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68]

이렇게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가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현왕후와 사씨는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행복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희생에 대한 답은 가문의 내침 이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첩의 위치는 더욱 굳건해 졌고 이로 인해 장희빈과 교씨는 욕심을 부리게 된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의 위치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현왕후와 사씨를 모함하고 거짓을 고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진실이라고 믿게 마련이다. 숙종과 유한림 역시 처음에는 처의 현숙함을 알았기에 첩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모함에 그들의 마음은 아들을 낳아준 첩에게 쏠리고 말았다. 결국 자신의 조강지처를 '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내친 것이다. 숙종

68) 김은숙, 앞의 논문, pp.26~27

과 유한림이 이런 판단을 후회하게 된 것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쳐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과 원망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남편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자신의 누명이 풀리고 남편이 성정을 회복하여 다시 그녀를 부를 때까지 그녀는 정절을 지키며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 후가 탄식고 위로 왈, "화복(禍福)이 재천(在天)하니 나의 행색이 천수이라. 다만 순수할 따름이라. 누를 원(怨)하리요마는 공주가 이렇듯 권련하시니 은혜난망(恩惠難忘)이로소이다." …(중략)… 이튿날 감찰과 상궁이 상명(上命)을 받자와 침전에 이르러 중궁 폐하는 전교를 아뢰니, 후가 천연히 일어나사 예복을 벋고 관잠을 끄르시며, 중계에 내려오셔 전교를 듣잡고 즉시 대내를 떠나 본곁으로 나오실새,
>
> (<인현왕후전> p.40)

> 한림이 비복을 명하야 종족을 모두 사당으로 모으라 하는지라. 시비 등이 모두 울면서 이 사연을 사 부인께 고하니 부인 안색을 변치 않고 천연히 가로되, "내 이 일이 있을 줄 안 지가 오래도다." 하더라.
>
> (<사씨남정기> p.62)

당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혼인 후에는 그 가문에서 생(生)을 마감하는 것이 의무라고 교육받았다. 자신이 그 가문에서 쫓겨나더라도 자신이 돌아갈 곳은 시집을 간 그 가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시댁과의 인연이 끊어지므로 친정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시부모의 묘소로 간다. 이는 시부모와의 인연을 굳게 간직함으로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곳은 유씨의 선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씨의 종족과 노비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여론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69] 이렇게 사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유한림이 이를 알게되면 자신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정으로 돌

69) 정병헌,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 『한국언어문학』 70집, 한국어문학회, 2009, p.192

아가지 않고 시부모의 묘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바라는 정절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유교사회에서 바라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지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현 상태에서 본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덕행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결국 인현왕후와 사씨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교육 받아 왔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인현왕후의 폐위와 사씨의 폐출 등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와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동안 유교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은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더욱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유교적 질서를 통해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인현왕후와 사씨에게 유교적 질서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따분할 것 같은 이 유교적 질서가 바로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평민과 같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 안달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더욱 이 질서를 지키며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때를 기다린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지배 계층으로서 유교적 질서를 지키며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이것이 그녀들이 지배 계층으로 유교적 가부장 사회 현실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가문을 지키고 유교적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에는 숙종과 유한림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

숙종과 유한림은 오랫동안 자신의 후사가 없던 시기에 아들을 낳아 준 첩에게 너무나 고맙고 그녀들이 사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

인 질서는 지키며 살아야 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투기로 내쳤다고 당시에 삼불거[70]라 하여 아내를 내치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하면 내치지 못한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우선 자신 앞의 행복만 생각하고 장희빈과 교씨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문에서 내쳐버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난 후였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현왕후와 사씨의 운명은 숙종과 유한림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선시대 가정 내에서 가장의 지위는 너무나 막강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데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자신의 심지만 바르고 곧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사회적 질서에 그저 소극적으로 순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부장 사회에서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판단 한 것이다.

### 2) 효(孝)와 덕(德)

인현왕후나 사씨의 효와 덕은 몸에서 베어 나온 것이다. 어릴적부터 유교 질서를 지키는 교육을 받아 왔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시대는 『소학(小學)』, 『여사서(女四書)』, 『열녀전(烈女傳)』, 『내훈(內訓)』, 『사소절(士小節)』등을 교육시켰다. 이를 교육받은 인현왕후와 사씨에게 효와 덕은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이다.

인현왕후와 사씨의 덕행은 곧 가문에 널리 퍼진다. 그녀들의 이러한 행동과 모습은 바로 그녀들의 가정환경의 영향이 컸다. 그동안 유교 사회에서 교육받은 것들은 모두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들은 이를 십분 활용해 가정을

70) 칠거지악에 속해도 婦有三不去라하여 세 가지 내치지 못할 사유가 있다.
①有所取無所歸不去 데려 온 곳이 있으나,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내치지 않는다.
②與更三年喪不去 함께 부모의 삼 년 상을 지냈으면 내치지 않는다.
③前貧賤後富貴不去 전에는 빈천하였으나, 후에 부귀할 경우 내치지 않는다.

다스려갔다.

입궐하신 지 삼사 삭에 교화(敎化)가 대치하여 화기애연하니, 양전 대비 극진히 야중하사 국가 복이라 축수(祝手)하시고 상이 공경중대하시며 조야(朝野)가 다 흠복하더라.

(<인현왕후전> pp.24~25)

사씨 이로부터 효도를 다하야 존구를 받들고, 공순함으로서 군자를 섬기고, 정성으로서 제사를 받들고, 은혜로서 비복을 부리니 규문(閨門)이 옹옹(雍雍)하고 화기가 애애하더라.

(<사씨남정기> p.22)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녀들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녀들의 신분에 따르는 자신감이 우러나와 아랫사람에게는 여유롭고 은혜롭게 대해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한다. 이러한 인현왕후와 사씨의 모습에 가정을 다스리는 덕이 은연중에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현왕후와 사씨는 부모에게 지극히 효성을 다했다. 당시 유교 교육을 받았던 두 사람은 부모가 편찮으실 때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어서 빨리 병환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빌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또한 그녀들을 칭송했고 이는 당시 사회가 원하던 여성상이었다.

계해(癸亥)년 겨울에 상이 두환(痘患)으로 미령(未寧)하사 증세위중(症勢危重)하시니 후(后)가 크게 염려하사 주야 띠를 끄르지 않으시고 정성이 아니 미친 곳이 없으시니, 대비께오셔 또한 조심하시며 우민(憂悶)하사 후(后)로 더불어 찬 물에 목욕하시며 후원(後苑)에 단을 모으고 친히 올라 주야로 축원하시니 후가 대비의 옥체(玉體) 상하실까 염려하사 몸소 대행하여 치성(致誠)할 바를 아뢰고 간절히 애권(哀勸)하되,

(<인현왕후전> p.25)

그녀는 남편이 병으로 눕게 되자 밤낮으로 자신의 몸은 생각지 않고 남편을 돌보았다. 이에 시어머니가 찬 물로 치성을 드리자 어머니마저 병에 드실까 염려되어 자신이 그 일을 대신 하겠다한다. 그녀는 자기 일신의 안위보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했고 부모와 남편을 먼저 생각했다.

대비 상후 중 한절(寒節)을 무릅써 많이 근로하신 고로 옥체 자못 상하사 신음하시더니 점점 침중하시매, 상과 후가 우황초민(憂惶焦悶)하사 주야시탕하시며 호읍(號泣)을 마지 아니하시고, 대신을 명하사 종묘사직에 빌라 하시며 조서(詔書)를 내리와 통개옥문(通開獄門)하여 죄인(罪人)을 다 놓으시고, 모든 어의(御醫)로서 시탕(侍湯)을 배설하여 의약을 지성하시되 효험을 보지 못하시니 상과 후가 망극하사 초황(焦惶)하며 신민이 황황망조하더라. …(중략)… 신민이 황황(惶惶)하고 궁중이 경황(驚惶)하여 곡성이 흔천(焮天)하고 상과 후가 애통하심이 지극하사 육찬(肉饌)을 나오지 않으시니, 궁중 상하가 그 성효(誠孝)를 탄복치 않는 이 없었다 한다. 삼 년을 지내시고 혼전을 파하매 상과 후가 새로이 애통망극하시더라.

(<인현왕후전> pp.26~27)

하루는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 날마다 짙어가니, 한림 부부 밤낮으로 시탕(侍湯)하되 백약이 무효인지라.

(<사씨남정기> p.22)

인현왕후와 사씨는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 이들의 이러한 효심은 부모가 병환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부모의 병환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럼에도 차도가 없자 근심하고 애통해 하는 모습에 그 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본 백성들 역시 그 모습을 우러러 칭찬해 마지않았다.

“내 이리 되었으나 백옥무하하니 시운(時運)만 한할 것이요 무엇을 슬퍼하리요마는, 내 대내에 있을 때 본댁에서 송이를 무역하여 들이면 양대비전(兩大妃殿)에서

즐겨 진어하신 고로 위하와 수라에 썼더니, 오늘 송이를 보매 마음이 절로 감창하도다.” 말씀으로 좇아 용루가 옥안(玉顔)을 적시오니 좌우가 체읍하고 우러러뵈옵지 못하더라.

(<인현왕후전> pp.44~45)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자신의 친정인 안국동에 머물렀을 때도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폐서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효성이 너무도 지극했다. 송이를 보면서 양대비전을 생각하는 인현왕후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녀의 효성이 지극했음을 보여주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또한 사씨는 모친의 병으로 인해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한다. 자신이 가문의 안주인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기 힘든 상황에도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서 이런 것은 뒷전에 밀어 놓는다.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시다니 만일 지금 뵈옵지 못하면 평생 종천지한(終天之恨)이 될지라.…(중략)… 모녀 오래 떠났다가 서로 만나매 매우 기뻐하였으나, 부인이 모친의 환후가 자못 위태하심을 보고 본부에 머물러 모친의 병환을 구호하매, 수이 돌아오지 못하고 자연 수월(數月)이 되었더라.

(<사씨남정기> pp.42~43)

그녀들은 자신이 배운 유교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아간다. 부모에게 순응하며 남편을 공경하고 가문을 이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이들의 가정 큰 효와 덕은 후사를 이어줄 첩을 들이는 부분이다.

혼인 후 오랫동안 태기가 없던 인현왕후와 사씨는 유교사상에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에게 첩을 들이라 권한다. 겉으로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인현왕후와 사씨가 안쓰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녀들이 영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가문의 정실부인으로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칠거지악(七去之惡)에 의하면 아이를 낳

지 못하는 것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 “내 박덕미질로 곤위에 모첨하였으나 주야 여림박빙하는 바는 웃전 성덕 갚삽지 못하올까 염려하더니 박덕하여 생간의 길을 얻지 못하니 어찌 종사를 염려치 않으리요.” 언파에 안색이 일정하사 안과 밖이 자약하시니 공주 등이 감복하여 다시 간(諫)치 못하고 서로 성덕을 칭송하며 대왕대비 애중하심을 마지 아니 하시더라.
>
> (<인현왕후전> p.28)

>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되 아직 한낱 혈육이 없사오니, 고법(古法)으로 말하오면 군자의 버린 바 되더라도 두 말을 못 할지어늘, 어찌 감히 첩둠을 꺼리리까?” …(중략)… "첩은 기질이 허약하야 생산할 가망이 없사오며 또한 도리로써 말할지라도 일처일첩은 남자의 떳떳한 일이라. 첩이 비록 태사 같은 덕은 없사오나 세속 부녀들의 투기함은 본받으려 하지 않나이다.
>
> (<사씨남정기> p.25)

그녀들은 자신의 위태로운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첩 두기를 청하면서 자신의 덕(德)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행동 한 결과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또한 인현왕후와 사씨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첩으로 들어오는 장희빈과 교씨가 가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첩을 들여서 사하려 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당시 사회는 적서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때에 첩에게 아들을 본다고 그 아들이 적장자가 될 수는 없다. 첩에게 낳은 아이는 서자로 대우를 받고 종모법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편으로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우선 교씨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회임을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이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사회적 질서

를 수용하면서 자신에 이익을 찾아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현숙하고 어진 사람이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어릴 적부터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면서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에 자부심이 있었고, 가정에서 교육 역시 유교적인 덕목이 중시 되었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다 나서지 않더라도 자신만 정도의 길을 걸으면 결국은 모든 일이 밝혀지리라는 생각에 억척을 떨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주장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인현왕후와 사씨에게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유교적 사회에서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에 의해 질서를 수용하며 살아간 것이다. 당시 사회가 유교적 가부장 사회였고 신분제도가 철저했던 사회였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이미 갖추어진 토대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착하고 덕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녀들의 이러한 덕망 있는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에 그녀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대비책으로 유교적 질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간 것이다.

## 2. 개인적 욕망 추구

이들은 자신의 신분상승을 꾀하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룩한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자초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

다. 이들의 노력이 현실에 역행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신분상승을 위해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른다. 이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처를 몰아내고 자신의 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숙종과 유한림의 행동이 그 바탕에 깔려있었다. 처음부터 명확히 선을 긋고 가정 내 질서를 유지 했더라면 이러한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 신분상승

장희빈과 교씨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윤리 도덕을 져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상승을 꾀하는 인물이다. 이들 역시 자유와 권리가 유교적 질서로 제한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 대응 방식은 인현왕후나 사씨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인현왕후와 사씨가 사회적 질서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던 반면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애착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맞서 대항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장희빈과 사씨의 행동이 악인(惡人)으로 보여 지고 있다.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기 전에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모든 권력과 지위가 자신의 신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지위에서 시작한 인현왕후나 사씨와 낮은 지위에서 시작한 장희빈과 교씨의 현실 대응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장희빈과 교씨는 '첩(妾)'이라는 신분으로 시작을 한다. 이것은 '처(妻)'의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 그녀들은 '처'인 인현왕후와 사씨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첩'이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말을 잘 따라야 한다. 잘못 보여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의 지배 속에 위치하게 된 '첩'은 항상 불안 할 수밖에 없다.[71]

항상 처에게 지배 받아야 하는 첩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

71) 김은숙, 위의 논문, p.32

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인현왕후와 사씨를 모함하는 장희빈과 교씨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대를 잇기 위한 첩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난 후 그들의 기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 문득 참람한 뜻과 방자한 마음이 불 이는듯하니, 중궁전(中宮殿) 성덕과 용색이 일국에 솟아나고 인망(人望)이 다 돌아가니 간출시기하여 가만히 제어하고 대위를 엄습고자 하니, 그 참람한 역심이 더욱 심하여, 날로 기색을 살펴 중전을 참소하려 하는 말이,
>
> (<인현왕후전> p.29)

> 내 용모와 자질이 모두 사씨에게 및지 못하고, 더욱이 적첩(嫡妾)의 분의가 현수(懸殊)하건마는 다만 나는 아들이 있고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공의 은총을 받아왔거니와 지금은 저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 이 집 주인이 될 것인즉, 내 아들은 쓸데없는 군것에 불과한지라. 부인이 비록 좋은 낯으로 나를 대하나 그 마음은 알 수 없으니 만일 부인의 간새로 상공의 마음이 변한즉, 나의 전정(前程)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
>
> (<사씨남정기> p.37)

아들을 낳고 한시름 놓고 있던 장희빈과 교씨는 자신의 아들을 인현왕후와 사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칭찬도 좋게 들리지 않았다. 대를 이을 아이는 자신이 낳았는데 왜 덕이 있고 훌륭하다는 소리는 인현왕후와 사씨가 들어야 하는지에 불만을 가졌다. 여기에서도 장희빈과 교씨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드러나 있다. 자신이 조강지처이고 집안이 든든한 양반 계층이었다면 아들을 낳고도 이렇게 홀대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현왕후와 사씨가 더 눈엣가시 같았다. 장희빈은 이런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인현왕후를 참소했다. 교씨 역시 사씨가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 자신이 이 집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사씨를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자신의 소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

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서자로 사씨의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교씨 역시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불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장희빈과 교씨는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분상승을 꾀한다. 장희빈은 중인 계층이고, 교씨는 사족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다. 인현왕후와 사씨가 신분상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에 비하여 장희빈과 교씨는 그런 특권 계층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았다. 인현왕후와 사씨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장희빈과 교씨는 안주인이라는 권력을 잡은 후 그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 자신의 이익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다.[72] 권력을 이용해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이듬해 경오에 장씨의 생자로 왕세자를 책봉하시니 장씨 양양자득하여 방약무인하니, 이러므로 발악을 일삼아 비빈(妃嬪)을 절제하며 궁녀를 엄형(嚴刑)하여 포학한 말과 교만한 행지(行止) 불가형언이라. 희재는 밖으로 탁란하고 음험하여 팔도에 장난하되 감히 말할이 없더라.
>
> (<인현왕후전> p.48)

> “내 오늘부터 새로 집안 일을 주장(主掌)하리니 너희들은 다 각각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야 죄에 범치말라.”
>
> (<사씨남정기> p.65)

> "사씨 종조에게 득죄하였거늘 어찌 감히 유씨 묘하에 있으리요? 한림이 잠자코 있다가 가뢰되, “제 이미 출부된 바에 거취를 제 뜻대로 할지라. 하물며 묘하에 타인도 많아 사나니 저를 금하야 무엇하리요.”하니, 교녀 마음에 거리끼나 감히 어떻게 못하더라. 하루는 교씨가 동청을 보고 의논하니, …(중략)… “두 부인의 편지를 위조하야 행장을 차려오라 하면 사씨 그대로 좇아가리니, 냉진이 데려다가 협박하면 사씨 아

72) 류수앙, 앞의 논문, p.60

무리 절개 있은들 제 벗어나리요. 이는 참으로 독 속에 든 쥐라. 저 사씨, 냉진에게 한 번 몸을 허하면 유가와 더불어 아주 끊어지리니 어찌 기이한 꾀가 아니리요."

(<사씨남정기> pp.67~68)

이렇듯 장희빈과 교씨는 인현왕후와 사씨를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권력을 얻음에 더욱 방자해 지기 시작했다. 장희빈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벼슬을 주며 그동안 자신이 신분 때문에 겪었던 한을 모두 풀어야 겠다 생각하며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 교씨는 자신이 가문의 안주인이 되자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집안일을 처리할 것이니 맡은바 임무를 잘 하라고 경고한다. 이는 교씨가 안주인으로 지난날 사씨가 자신이 거문고를 탈 때 훈계를 당한 것에 대한 한풀이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집안에서 자신은 남편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유한림의 처이자 가문의 안주인이므로 자신에게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들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 권력에 대해 만족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모함으로 인현왕후와 사씨가 쫓겨났고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쫓아낸 지아비에게 어떠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정절을 지키고 유교적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언제 숙종과 유한림의 마음이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였고, 자신의 신분이 다시 예전의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까 불안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지나쳤던 것인지 그녀들은 이미 쫓겨난 인현왕후와 사씨를 모함하고 죽이려 했다. 이에 그간 성정이 흐려있었던 숙종과 유한림이 어느 정도 그녀들의 흉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고 했다.

장씨가 그윽이 상의를 짐작하고 크게 두려워 오라비 희재로 더불어 꾀하여 갑술년 묵은 옥사를 다시 일으켜 어진 이를 다 죽이고 또한 중궁을 사약하려 하니 변이 크게 나매, 상이 그 하는 양을 보시며 그 심법(心法)을 살피사 완연(宛然)히 간인의 흉모를 알으시고 즉일에 독사를 뒤집어 환탈(換奪)하여 영신을 다 물리치시며 옛 신하를 다 내어 쓰실새,

(<인현왕후전> p.49)

"내 한림의 기색을 보니 앞날과 다른지라. 아마 우리 두 사람의 일을 아는가 싶으니 어쩌면 좋을꼬?" …(중략)… "지적에 천자께서 조서를 내리사 '나의 기도하는 것을 간하는 신하는 곧 죽이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 들을 보매 시절을 두고 기롱(譏弄)하여 엄 승상이 천자께 아뢰어 법으로 다스리리니,

(<사씨남정기> pp.95~96)

차설, 유한림이 금의옥식으로 생활하다가 뜻밖에 귀양살이를 하매 그 고초 측량 없고, 또 수토가 사나운지라. 이에 전일을 생각하고 뉘우쳐 가로되, "사씨, 일찍 동청을 꺼리더니 이제 그 말이 옳은지라. 지하에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선조를 뵈오리요."

(<사씨남정기> p.101)

숙종과 유한림의 행동에서 불안감을 느꼈고 이것이 <인현왕후전>에서는 인현왕후의 복권 이후 희빈으로 강등 당하자 더욱 패악을 부리고 결국 신당을 차려 인현왕후를 저주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져서 사약을 받기에 이른다.

그녀들이 이렇게 신분상승에 집착하는 원인에는 바로 당시의 유교적 사상과 더불어 엄격한 신분제도 때문이다. 신분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장희빈과 교씨는 이러한 사회 현실에 순응하지 못했다.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위해 끊임없이 현실에 도전하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너무 지나쳤던 것인지 그들은 앞뒤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순간만을 생각했다. 그 일로 인해 벌어질 미래의 일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만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를 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2) 부귀영화

장희빈의 신분은 비록 천인으로 미천하나 자신의 숙부 장현은 조선 최고의 갑부

라 할 정도로 부자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종모법에 따라 천인이었고 남에게 무시를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씨는 사족의 출신이지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라는 순탄한 길을 버리고 차라리 부자집의 첩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이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이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씨는 첩의 자리를 택했고 이는 그녀가 가난한 삶에 지쳐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듯이 처음에는 가난 삶이 싫어서 선택한 자리지만 여유로워진 생활을 하다 보니 부귀영화를 꿈꾸게 되었다. 자신이 부귀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현왕후와 사씨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녀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인현왕후와 사씨를 모함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궁인으로 궁에 들어와 왕의 눈에 들었지만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없어 왕대비전에 미움을 사서 쫓겨난 기억[73]이 있던 장희빈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결심[74]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남인의 출세를 위해 노력했고 이를 이용해 인현왕후를 몰아낼 계획을 시도 할 수 있었다. 교씨 역시 자신이 부귀영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씨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동청과 냉진, 시비 등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집안에 심어놓았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데 힘을 기울인 것인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언제 다시 예전의 가난하고 멸시 받았던 삶으로 돌아갈 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생활

73) 『숙종실록』(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0일)에 보면 "경신년 인경 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명성 왕후(明聖王后)가 곧 명(命)을 내려 그 집으로 쫓아내었는데 …(중략)… "내전(內殿)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고,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喜怒)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꾐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오."(庚申仁敬王后昇遐之後, 始得承恩, 明聖王后, 卽命黜送其家 …(중략)… "內殿未見其人矣, 其人甚奸毒, 主上平日, 喜怒暴急, 若見寵幸, 則國家之禍, 有不可言, 內殿後當思吾言矣")라고 하였다. 명성왕후는 장희빈을 간사하고 악독하며, 숙종이 장희빈의 꾐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74) 박기현, 『악인들의 리더십과 헤드십(동양편)』, 김&정, 2005. p.118

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악한 일을 자행했다. 결국 그녀들은 자신이 원한바대로 '처'의 자리에 올랐다.

장희빈과 교씨는 자신이 '처'의 자리에 오르자 기세가 등등해 졌다. 그녀들은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바라는 '덕'으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녀들에게는 남보다는 자신이 먼저였고, 규범이나 체제를 지키며 살기보다는 현실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다.

> 이듬해 경오에 장씨의 생자로써 왕세자를 책봉하시니 장씨 양양자득하여 방약무인하니, 이러므로 발악을 일삼아 비빈(妃嬪)을 절제하며 궁녀를 엄형(嚴刑)하여 포학한 말과 교만한 행지(行止) 불가형언이라.
>
> (<인현왕후전> p.48)

> 차설, 교녀 정당(政堂)을 차지하야 가사를 총찰하매 악독함이 날마다 더하야, 비복이 그녀의 혹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사씨를 생각하더라.
>
> (<사씨남정기> p.92)

장희빈과 교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 들통이 날 지 모르고 또 자신이 '처'를 모함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악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숙종과 유한림은 성정을 회복하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 처리한 일들에 대해 이를 되돌리려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장희빈과 교씨는 두려움을 느꼈다.

> 이 적에 희빈이 오래 대위(大位)를 엄습하여 천만세나 누릴 줄 아더니, 홀연 상의 일조에 변하사 국옥을 뒤치고 폐비께 상명영락하여 즉일 복위하여 들어오심을 듣고, 청천의 벽력이 일신을 바아치는 듯 높은 빙애에 떨어진 듯 일천 잔나비 가슴에 뛰노니, 스스로 대노대분(大怒大墳)을 이기지 못하여 시녀로 전어(傳語) 왈, "내

오히려 곤위(坤位)에 있거늘 폐비 민씨 어찌 문안치 아니하느뇨. 크게 실례하며 방자함이 심하도다.”

(<인현왕후전> p.59)

“내 한림의 기색을 보니 앞날과 다른지라. 아마 우리 두 사람의 일을 아는가 싶으니 어쩌면 좋을꼬?” …(중략)… ”일이 이 같으니 어찌하리요? 나는 여자라 소견인 업으니, 낭군은 좋은 꾀를 생각하여 화를 면케 하라.”

(<사씨남정기> p.95)

장희빈과 교씨는 숙종과 유한림의 마음이 돌아섬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영화를 빼앗기는 것에 겁을 먹고 오히려 발악을 한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에 후일을 도모하고 물러설 줄도 알던 이들이 한번 권력의 맛을 본 후에는 이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장희빈은 자신이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인현왕후를 모해하고 이것으로 되지 않자 미신을 동원하여 인현왕후에게 해코지를 했다.

죽어도 원수를 갚으리라 하여 요기로운 무당과 흉악한 술사를 얻어 주야 모의하여, 영숙궁 서편에 신당(神堂)을 배설하고 각색 비단으로 흉악한 귀신을 하여 앉히고 후의 성씨(姓氏) 생년일시(生年日時)를 써 축사함을 만들어 망하심을 축수하여 빌며, 또 화상을 걸고, 궁녀로 하여금 활로 매일 세 번씩 쏘아 종이가 헤어지면 비단옷으로 염습하여 중전의 신체라 하고 못가에 묻고 화상(畵像)을 걸고 쏘아 이러한지 삼년이로되,…(중략)… 중전 의복 일습을 지어 해골을 작말하여 소옴에 뿌려 두었으니 누가 그 흉모를 알리요.

(<인현왕후전> pp.66~67)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이 세자이므로 아무리 후궁으로 밀려났다고는 하나 엄연히 세자의 어미이다. 이것으로도 그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후궁으로 있었을 때와 중전으로 있었을 때의 그 권세

와 영화의 차이를 아는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다시 중전이 되어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미신을 동원해 인현왕후를 해코지 했던 것이다.

교씨는 장희빈과 달리 유한림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불리해짐을 깨닫고 부귀영화를 위해 남편을 버릴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동청과 더불어 유한림을 상소하고 자신은 다시 부귀영화를 쫓아서 동청의 아내로 생활한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냉진과 사통하고 다시 냉진과 더불어 동청을 버리고 냉진을 따라나선다. 하지만 도적에게 모든 재산을 도둑맞아 빈털터리가 된다. 다시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가난한 삶이 싫어 창기가 된다. 부귀영화를 위해 배신과 음모를 반복하더니 결국 그녀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하는 술책인 줄도 모르고 다시 첩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한다.

> ‘내 비록 의식의 부족함이 없으나 나이 점점 많아지니 종신 의탁할 것을 어찌 생각지 아니하리요.’
>
> (<사씨남정기> p.127)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창기가 된 것은 가난한 삶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가 되어서도 의식의 부족함이 없다며 현재에 불평을 가지고 있지않았다. 하지만 부귀영화의 유혹에 그녀는 넘어가 버렸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인 줄도 모른다.

장희빈과 교씨는 유교적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녀들에게 유교적인 사회에서 명분과 실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쭉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당시 사회에서 신분 변화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것을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뤄냈다. 그녀들에게 현실 도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 Ⅴ. 결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두 작품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 작품의 소재가 인현왕후 폐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유교적 가부장 사회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를 선·악의 대립 또는 처·첩갈등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해 왔다. 여기에서는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장르와 창작시기 및 창작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두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한 후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숙종과 유한림의 우유부단함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하기에 앞서 두 작품의 장르와 창작배경 및 창작동기를 살펴보았다. 먼저 두 작품의 장르와 창작배경 및 창작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인현왕후전>의 장르로는 전, 수필, 소설 등 여러 장르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사씨남정기>의 장르로는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화되어 목적소설, 풍자소설, 가정소설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인현왕후전>을 인현왕후라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모티프로 했다는 점에서는 수필적인 요소가, 인현왕후의 일대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의 요소가, 작품의 구성 방식에는 소설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한 작품 안에서 복합된 장르로 <인현왕후전>을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정의했다. 또한 <인현왕후전>에 대한 작자나 창작 시기 역시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인현왕후의 덕행을 칭송하기 위해 그녀를 곁에서 모시던 궁인이나, 그의 후손, 혹은 서인이라는 세력이 <인현왕후전>을 창작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유나 목적이 어찌되었건 <인현왕후전>의 창작 동기는 인현왕후의 성덕을 칭송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이 창작했다. 작품에는 작가의 정신이 녹아있기 마련인데 김만중은 인현왕후의 폐위 사건으로 귀양을 가게 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한림과 사씨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숙종이 이를 통해 과오를 깨닫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에서 창작된 목적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창작 시기가 언제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창작시기에 대해 크게 선천 유배 전, 선천 유배 후, 남해 유배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숙종의 과오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한다면 남해 유배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숙종과 유한림의 성격, 인현왕후와 사씨, 장희빈과 교씨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기존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숙종과 유한림의 성격은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가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창작 되었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숙종은 성격이 급하고 독단적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줄 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 잡는 반면 유한림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명분을 중시한다. 이런 소극적인 그의 성격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를 후회 하여 결정을 번복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인현왕후와 사씨의 성격 역시 당시 어릴 적부터 유교적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유교사회에서 명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인현왕후는 규범을 중시하고 자신감 있으며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규범을 중시하면서 그 규범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당당하게 대처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녀의 단호한 성격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사씨가 가문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와 가문 밖에서 위치할 때의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문 속에서 사씨는 가문의 안주인이자 경영자로 가문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일을 처

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냉정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가문 밖에서 그녀의 성격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가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매사에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결국 그녀를 다시 가문의 안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장희빈과 교씨는 도저히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장희빈은 당당하고 감정에 솔직한 성격이다. 이러한 당당함이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솔직함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여성이다. 교씨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현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성격이 결국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Ⅳ에서는 주인공들의 현실 대응 양상을 비교했다. 조선 후기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순응하고 살아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의지하는 남성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 유교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결정은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여성들의 삶을 결정하고 가정의 평화와 분란 등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숙종과 유한림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숙종과 유한림은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유부단하다. 그들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분란이 야기된 것이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당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 인물이고, 장희빈과 교씨는 유교적 사회의 명분과 질서를 유지하며 살기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간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선택한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과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녀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 결과 당시 시대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며 지배 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들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달지 않는다. 자신들이 지배계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만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익혀온 유교적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가정을 효와 덕으로 다스리고 남편의 결정에 순응했다. 그녀들은 유교 사회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겼고 이 때문에 첩을 들이기를 청했다. 이것이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들에게는 가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시기였으므로 처와 첩의 관계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칠거지악'중 하나이므로 먼저 첩을 들이라 청한다면 자신의 부덕과 인망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선택했다. 또한 집안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지만 정절을 지키며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다시 가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의 지위에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현왕후와 사씨는 유교적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 수 있었다.

장희빈과 교씨는 결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다.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로 신분제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장희빈은 중인의 신분으로 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현재의 신분 체제에 불만이 많았다. 교씨는 사족 출신으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지배계층과 그녀들의 삶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희빈과 교씨는 끊임없이 신분상승을 꾀했고 부귀영화를 바랬다. 그들이 첩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첩이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윤택해 지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인현왕후와 사씨의 덕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두 사람은 자신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첩으로서 자신의 지위는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인현왕후와 사씨를 모함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 현실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키우고 이를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개인적 욕망을 추구 하며 살 수 있었던 원인에는 숙종과 유한림이 있었다. 첩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권력의 힘은 숙종과 유한림의 애정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애정이 식으면 그녀들은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권력을 한번 맞본 이들은 정상에서의 기분은 쉽게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패악을 부렸고 이로 인해 자신들을 사랑해 주었던 숙종과 유한림마저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에 따른 현실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현실을 살아갔다. 인현왕후와 사씨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 부합하도록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장희빈과 교씨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현실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의 삶 중 어떠한 삶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삶은 처음 출발선부터가 서로 달랐으니 말이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관점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선·악이라 구분 짓고 등장인물들의 삶을 살펴보기 보다는 관점에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자료

김만중, 박정수 옮김,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청목, 2003.

구인환 엮음, 『인현왕후전』, 신원문화사, 2003.

정은임 교주, 『인현왕후전』, 이회문화사, 2004.

『숙종실록』

『연려실기술』35, 숙종조고사본말.

이규경, 「소설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권7.

## 단행본

강현식,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살림, 2008.

김광순, 『고소설사』, 새문사, 2006.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0.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출판부, 2001.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김용숙,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硏究』, 숙명여대출판부, 1970.

김태준,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4.

박기현, 『악인들의 리더십과 헤드십(동양편)』, 김&정, 2005.

박성의, 『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3, 휴머니스트, 2008.

안자산, 최원식 역 『조선문학사』, 을유문화사, 1984.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6년 겨울), 역사비평, 1996.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87.
이원수,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이종호, 『조선을 뒤흔든 아버지와 아들』, 역사의 아침, 2008.
임중웅, 『다시보는 조선왕조 왕비열전』, 석천미디어, 2002.
정두희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소나무, 2004.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최선경, 『왕을 낳은 후궁들』, 김영사, 2007.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연구』, 보고사, 2006.

**학술지**

김동욱, 「인현왕후전 이본고」, 『문리사대』 1, 서울문리사범대학, 1959.
김신연, 「仁顯王后傳 異本考」, 『원우론총』 10, 숙명여대대학원 총학생회, 1992.
김현룡, 「사씨남정기 연구」, 『문호』 5,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69.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박갑수,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14, 한국 교육 연구회, 1968.
박요순, 「仁顯王后傳 硏究 : 特히 未發表 異本을 中心하여」, 『숭전어문학』,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7.
박일용, 「謝氏南征記의 理念과 美學」,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우쾌제, 「사씨남정기 연구」, 『숭전어문학』 1, 숭전대 국어국문학과, 1972.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구』 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이석래, 「서포소설의 문제점」, 『성심어문논집』 1, 성심여대 국어국문학과, 1966.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창작 동기 및 시기 논란」,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2009.
_____,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 3,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정규복, 「남정기의 저작동기에 대하여」, 『성대문학』 15·16, 성균관대, 1970.

정병헌,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정은임, 「사씨남정기와 인현왕후전의 비교연구: 인물의 성격구조를 중심으로」, 『논문집』 16, 강남사회복지대학, 1986.

진경환, 「소설사적 관점에서 본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관계,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한석수, 「사씨남정기 창작배경 재고 - 단암만록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9집, 개신어문학회, 2009.

**학위논문**

김경미, 「謝氏南征記 作中 人物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김신연, 「인현왕후전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김은숙,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충배, 「인현왕후전 연구-사상적 배경과 작중인물의 현실 대응을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류수앙,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박선희, 「사씨남정기의 여성 인물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오경숙, 「사씨남정기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0.

원선자,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비교연구;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72.

이정희, 「<인현왕후전>의 문학교육적 성격 연구 -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조지영,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대비 연구 - 주인공의 인간상을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경은,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저작물 이용 허락서

| 학 과 | 국어교육 | 학 번 | 20078187 | 과 정 | 석사 |
|---|---|---|---|---|---|
| 성 명 | 한글: 이수빈 | 한문: 李受玭 | | 영문: Lee Soo-Bin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삼익@113-804 | | | | |
| 연락처 | 010-3203-0562 E-MAIL: dud5tjs@naver.com | | | | |
| 논문제목 | 한글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비교 연구<br><br>영문 : A Comparative Study of <Inhyeonwanghujeon> and <Sassinamjeonggi> | | | |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0 년 7 월 1 일

저작자: 이 수 빈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